

# 아가페

2013년 여름  
제378호

전교인 여름 수련회

여름 VBS

여름 캠프

중고등부 수련회

여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킹즈장로교회**

## 시편 57편

1 하나님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뺑에서  
나를 구원하실찌라(셀라)하나님이 그 인자한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5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6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셀라)

7 하나님이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 내 영광아 깨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영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11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아 가 페

2013년 여름

이주 함인  
예수교 장로회 **윈즈장로교회**

---

# 순서

- 6 Everlasting Spring Column  
장영춘 원로목사
- 8 “요나의 사명”  
장영춘 원로목사
- 12 “창조주 하나님”  
박규성 담임목사
- 16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박수영 캄보디아 선교사
- 19 Acrostic Poem  
황미희 집사
- 20 한 모퉁이의 고목나무가 되어  
윤자숙 권사
- 22 한 마음 축제  
이정훈 집사
- 25 시 “나팔꽃 향수”  
곽상희 시
- 26 아버지 주일에  
강진영
- 28 전교인 여름 수련회  
편집부
- 30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간증  
나인에 권사, 김윤영 집사, 장춘광 집사
- 36 “JESUS IS MY SUPERHERO” 찬양집회  
이정훈 집사
- 40 천국의 주인공들의 잔치  
편집부
- 41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  
편집부
- 42 여름 VBS  
최은숙 집사, 최효진 집사, 황옥지 집사,
- 49 유년부 여름캠프  
채영주 집사

51 초등부 여름캠프  
황성남 집사,

54 2013 Summer Retreat  
Lauren Kim

56 중등부 수련회  
심성희 청년, Ashley Koo, Joseph Koo,  
Deborah Ruiz

63 고등부 수련회  
Jennifer Choi, Joseph Hur, Zach Fu,  
Angela Kim, Han Yi, Tamara Kim

68 QPEM Reflections  
김도현 목사

69 제 4회 새아가 환영회를 준비하며  
권명선 집사

70 영아부에서 12년  
박선해 사모

72 스승의 날  
조정숙 집사

73 섬기는 자의 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경숙 집사

75 Farewell to Youngahboo  
David Shin

76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권희은 집사

77 풀송이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민정 사모

79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김재형 전도사

80 “너를 처음 만났을땐”  
이영경 집사

82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김지빈 집사, 최사몽 집사, 차진희 집사

92 “고등부에서”  
임재희 학생

94 청년부 Power Worship X-File  
김근희 집사, 소승우 청년, 이애령 집사

99 In-city 캠퍼스 심방  
오건 목사

101 동부개혁신학교 졸업  
이양미 전도사

103 새가족수로 간증  
최정근, 김미연

106 효도관광  
최원일 집사

109 남전도회 낚시 친목회  
손충현 집사

111 경배와 찬양팀 수련회  
오인수 전도사

115 미술 전시회  
심경선 집사, 김은경 집사

118 새 교역자 소개  
정도영 목사

120 요셉 도서관 신간 안내

124 Setting Our Minds on Things  
bove in Summer  
John Piper

126 2013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장영춘 원로목사

“나는 다섯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6·25 동란 당시 공산당에게 한 차례, 군사 독재 정치 때 네 차례, 그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UN이 지정한 98년도 인권상을 받는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서 미 상하의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였다.

이 어려운 때에 나라를 섬기는 지고의 사명 때문에 남다른 죽음의 고비 고비 마다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역경 중에서 인생을 배우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꺾고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아 덤으로 산 인생이기에 신명을 바쳐 일하고자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기치 않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기며 살아가고 있다.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각 사람에게 특수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모 목사는 세 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는데 한 번은 군복무 때 막걸리를 먹고 취한 군인이 내무반에 있는 자기 목에 총구를 들이대고 쏘 죽이려는 데서

“To this day, I had five close encounters with death. The first incident was during the Korean War when I was almost killed by the Communist Party, and four incidents were during the time of military dictatorship. If it wasn't for God's help each and every time I came close to dying, I wouldn't be here right now.” These words were spoken by President Kim Dae Joong, when he was presented with the Civil Rights Award by the UN. He also reiterated these words in his speech to th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Congress.

God has saved him from each close encounter with death because of the great mission he is to carry out for his country during this difficult period. Furthermore, God has molded and trained him to become a President who is able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by teaching him about life through perspective. In his words, his awareness of God's sovereign providence and his resolute will to dedicate his extended life to carrying out His work, are evident.

Each person lives his or her life experiencing close calls with death. God, the Father, who is Providence, gives each individual a specific calling and creates a particular environment for that person in order to enable the person to carry out his or her individual task. A certain pastor had three close encounters with death. In his first incident, a soldier who was drinking on duty came into his living quarters, put a gun to

위기를 모면했고, 두 번째는 벼락을 맞았는데 전류가 왼쪽 어깨를 타고 손으로 내려가 살았고, 세 번째는 비행기 사고로 유언까지 해 놓고 생을 정리하려 했는데 다행히 살았노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술회하였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일곱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 때 그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비상 간섭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써 주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귀중한 목회사역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살려 주신 것이다. 그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장로, 집사, 권사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며,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이다.

교회의 직분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나의 주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일에 수종드는 복음의 동역자들이다.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을 주심을 알고 주님과 그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 헌신함으로 사명을 다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his neck, and was about to kill him, but he was spared his life. In the second incident, he was hit by lightning and the electric current rode the contour of his left shoulder down to his hand, and he lived. In the third incident, he was in a plane accident and thinking he would die, he wrote up his will, but ended up living. And so he reminisced and expressed that the life he was now living was an extra life given to him.

During my lifetime, I have had seven close encounters with death. At each critical moment, the Almighty God intervened to save my life. What could be the reason for this? God had saved me so that I would be able to carry out the invaluable pastoral ministry and mission work given to me. And that is why I am doing my best to carry out the work I have been called to do.

The servants of the church must recognize that their precious lives have been preserved by God, and be thankful and faithful workers. One does not become an elder, deacon, or kwon-sa just because one wants to. A position in the Church is a calling given by God. A servant of the Church serves the Lord who gave up His life, as his or her Lord and God, and becomes a fellow worker of the gospel who assists in the work of saving mankind from death. As workers for Christ, we must realize that our Father God who has helped us survive thus far, has found us faithful and given us invaluable Church positions, so that we may faithfully serve the Church, which is the body of Christ. We must become servants who dedicate our lives for the Lord and His Church, and for the kingdom of God.

## 요나의 사명

요나서 1장 1-15절, 3장 1-5절

장영춘 원로목사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선지자 요나는 그 소명을 불순종하여 도피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직전까지 이르렀다가 기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회개 후 재소명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여 그 거민들을 회개시켰습니다.

###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불순종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앓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 성읍의 악독이 상달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요나를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2절).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여호와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스스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읍바로 내려간 요나는 마침 다스스로 가는 배를 만나 큰 행운으로 생각하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 하나님의 진노

니느웨 거민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 JONAH'S CALLING

JONAH 1:1-15, 3:1-5

The prophet Jonah, who was called by God, disobeyed that calling and was running away when he was met by a great storm and came to the brink of death, only to be miraculously saved. Upon repentance, Jonah received his calling and went to Nineveh to proclaim God's judgment, and had the people of Nineveh repent to the Lord.

### GOD'S COMMAND AND JONAH'S DISOBEDIENCE

When the wickedness of the Assyrian Empire's capital city of Nineveh came up before God, He called Jonah in order to save the Ninevites.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each against it"(v. 2). However, Jonah disobeyed God's command and tried to escape to Tarshish, which was the



요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어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에 실었던 물건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때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우며 “자는 자여 어찌이노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6절)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다가 부끄럽게도 이방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재앙이 무슨 연고로 임하였는지 모르는 그들이 제비를 뽑자 그 제비가 요나에게 당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로서 여호와의 소명을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낫을 피하려다가 재앙이 왔음을 고백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12절)고 하였습니다. 이제 요나의 도피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선지자인 그는 이방인들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책망을 듣는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배의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였으나 바다가 점점 더 흉용해지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바다의

center of Mediterranean trade. Jonah, who had gone down to Joppa, found a ship bound for the port of Tarshish, and thinking it to be a fortunate event, paid the fare and boarded the ship.

### *GOD'S WRATH*

The Lord God began to interfere with the plans of Jonah, who had disobeyed and rejected God's hope for having the people of Nineveh repent and be saved. He sent a great wind upon the sea, and a violent storm arose so that the ship which Jonah had boarded, was about to break apart. The sailors were afraid and thus, cried out to their own gods. They also threw cargo overboard in hopes of lightening the ship.

However, Jonah, who had gone below deck, laid down and fell into a deep slumber. But the captain shook him and woke him up, saying, “How can you sleep? Get up and call on your god!”(v. 6). Because the prophet Jonah did not take his calling seriously, and was in a spiritual slumber, it resulted in him being rebuked by a Gentile. It is the same for us; if we go into a spiritual sleep, we will end up hurting others and be reproached.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요나는 깊은 바닷물 속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삼일 삼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 요나의 기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 삼야를 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2장). 그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4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7절)라고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9절)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의 예표입니다(마 12:39-41).

### 요나의 전도

여호와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

### JONAH'S PRAYER

Jonah prayed to God inside the fish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ch. 2). He gave a prayer of repentance. He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v. 4). He also gave a prayer of faith and confidence, saying, “My prayer rose to you, to your holy temple”(v. 7). He gave a prayer of thanks: “But I, with a song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v. 9). The Lord heard Jonah’s prayer and commanded the fish to vomit Jonah onto dry land. Jonah being in the belly of the fish for three days and three nights before being saved, is a foreshadowing of Jesus dying on the cross, being buried, and then being resurrected after three days(Mt. 12:39-41).

### GOD'S WITNESS

The word of the Lord came upon Jonah for the second time.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proclaim to it the message I give you”(3:2). Jonah arose immediately and went to Nineveh as the Lord commanded. As he entered the city, he proclaimed,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하라”(3:2). 요나는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그 성에 들어가면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4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웬 일입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굶은 베를 입었습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굶은 베를 입고 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고 다 굶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 회개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큰 성 니느웨 거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세기 최대의 도성인 뉴욕을 복음화 하라고 요나와 같은 우리를 뉴욕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돈을 벌려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be overturned”(v. 4). What happened was surprising.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in God, declared a fast, and put on sackcloth. The king of Nineveh heard the news. He rose from his throne, took off his royal robes, and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to sit in the dust. Then he issued a decree ordering all men and beasts not to eat or drink anything, but to be covered with sackcloth, cry out to the Lord, and turn from their evil and violent ways. The Lord God who saw how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s, changed His mind, and did not bring upon them the destruction He had threatened. The great city of Nineveh was saved because of one man Jonah, who after disobeying, repented and obeyed God, and proclaimed His Word.

God sent us, who are like Jonah, to the greatest city of New York in order for us to evangelize to it. But aren't we rejecting God's will to save souls, and heading towards the world in order to make money? May we now obey God's command, and be witnesses of the gospel. If we only go ahead and witness, God will do the rest to bring faith and salvation.

##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박규성 담임목사



오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다. 모세가 출애굽을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의 기록됨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첫째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God  
the Creator  
GENESIS 1:1**

Today's scripture declares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the beginning. Moses is telling this to the Israelites who are about to enter Canaan, the land of milk and honey. Today's passage demands us of our faith. Once we believe that God is alive and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by His word, then it begins. Hebrews 11:3 says,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that are visible." Without faith, neither can we know God nor confess that He is LORD. Then, how does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work in our lives?

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13~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기록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됨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동행하신다. 때론 우리가 인식할 때나 때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었음을 믿어야 한다.

### **둘째로,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약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한 군사가 되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예 군사가 되려면 많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이유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

*First, He is God who prepares in advance.*

In Genesis 22, God asks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Isaac, on Mount Moriah. Verses 13-14 says, “And Abraham lifted up his eyes and looked, and behold, behind him was a ram, caught in a thicket by his horns. And Abraham went and took the ram and offered it up as a burnt offering instead of his son. So Abraham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The LORD will provide”; as it is said to this day, “O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provided.” As God had prepared a ram for Abraham to offer it as a burnt offering, God is with us as Jehovah Jireh to provide us and prepare us with things in advance.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we have to believe that He had prepared things for us in the past.

### *Second, He is God who disciplines.*

God does not want his people to be weak and live with failure mindset. He wants his people to be disciplined by His word and become who He intended us to be. For example, in order to be a strong soldier, you need a lot of training and discipline. Likewise, if you want to be God’s strong soldier, you need to be disciplined. In Genesis 15, God tells Abraham that his offspring will be sojourners

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케 하심을 통해 삶과 신앙이 예수를 본받아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 **셋째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신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는 내용이 있다.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가는 길에서 돌베개 하나 배고 외로이 잠에 들 때, 꿈에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본다. 그 가운데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창세기 28장 15~16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러할 때가 많다. 너무 힘이 들어 지쳐 쓰러질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임을 기억해야 한다.

and servants in Egypt for a while because God wants them to be disciplined and be strong. Therefore, we have to believe that God disciplines those who He loves, so that we can be more like Christ as a result.

*Third, He is God who is with us always. God delights in being with us always. In Genesis 28, Jacob flees from his father's house to his uncle Laban. During his escape from his brother, Esau, he takes one of the stones of the place and puts it under his head to sleep and in his dream, he sees a ladder set up on the earth, and the top of it reached to heaven and the angels of God were ascending and descending on it. And Jacob hears the word of God. Genesis 28: 15-16 says, "Behold, I am with you and will keep you wherever you go, and will bring you back to this land. For I will not leave you until I have done what I have promised you. Then Jacob awoke from his sleep and said,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and I did not know it." Jacob did not know that God has been with him and has been there to bless him. Likewise, we do not realize this truth in our spiritual journey. There are those tough times when we are weary and feel like we are all alone, but we must believe*

**넷째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창세기 1장 27~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한 능력의 근원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심으로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t God is still there with us. Through faith we know that God comforts us and that we are under God’s care.

*Fourth, He is God who blesses us.*

We must believe that God is our source of blessing and that He delights in blessing his people. Genesis 1:27-28 says,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heavens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As evidenced in the verses above, we have to remember that God is willing to bless us.

Dear People of God!

God who is the source of unlimited power, comes into our lives and is willing to prepare and provide for us in advance. He is God who disciplines us because he loves us in order that we become firm in our faith. He is always with us and he is willing to bless us. Let us be thankful to our God and live for His glory!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박수영 / 캄보디아 선교사



살롬!

사랑하고 보고 싶은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퀸즈장로교회에 2003년도에 등록하여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게 하신 후, 부르심을 받아 전도사로 5년 동안 섬기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 후, 선교의 마음을 주셔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1년차 때부터 캄보디아로 여름 2-3주 동안 단기선교로 3년 동안 꾸준히 보내시더니, 이제는 퀸즈장로교회 전도사가 아닌, 동남아시아와 세계선교를 위해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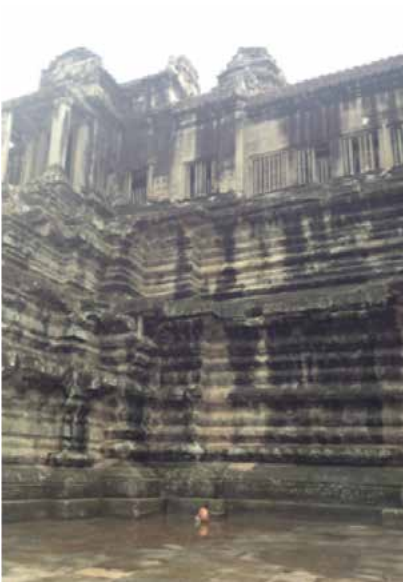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주의 종이기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캄보디아로 기도하며 떠났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까지 14시간의 비행시간과 또 다시 한국에서 캄보디아까지 5시간 30분의 긴 여정 끝에 6월 22일 캄보디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와 원로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선교사역에 맞추어 국교는 불교이지만, 종교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문화재인 앙코르왓트 사원이 있는 씨엠릴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상 된 불교 문화와 1000년 이상 된 힌두교 문화가 섞여 있는 캄보디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마다, 사업 터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기며 신당 같은 것을 두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길거리에도 이렇게 음식을 놓고 향을 피우며 신에게 복을 비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미국이라면 학교나 유치원에 가야할 아이가 앙코르와트 신전 앞에서 물놀이 하며 관광객들에게 구걸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어머니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물병을 모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캄보디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소득이 250불에 불과하였지만 10년 사이 500불 이상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졌지만, 빈부 격차가 극히 큰 나라이며, 아직도 많은 인구가 농사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 생활비 60-100불로 온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는 턱없이 부족해 공립학교에서 오전 반/오후반으로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고, 그러기에 수업내용도 형편없어 제대로 된 인재들이 길러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열어 주셔서 그 동안의 선교헌금으로 캄보디아 땅에, 다른 어떤 우상도 아닌 진정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고, 이들을 제대로 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학교와 영적인 질병뿐만이 아닌 육적인 병까지 치료하는 병원을 시작할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 여기 씨엠릴 국제공항에서 약 20분 떨어진 곳에, 제가 오기도 전에 현지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시켜주셨습니다.

또한, 여기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말이라

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밖에 못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온지 일 주일 만에 꼭 필요한 좋은 동역자 “Sam Taing”이란 현지지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그는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총장으로 계신 프놈펜 국제신학교에서 5년 동안 훈련 받아 신앙이 든든하고, 현지 목회도 2년 동안 했던 사람으로 영어를 잘하여 의사소통에



우리 교회와 학교가 들어설 땅입니다

문제가 없는 좋은 친구입니다. Sam Taing 사역자와 함께 정식으로 우리 교회 땅 위에 학교와 교회, 병원까지도 세워지도록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착한지 한 달 만에, 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예배등록허가서”를 받았고 정식으로 건물이 들어서도록 건축허가 받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 의료사역을 현지법을 지켜가며 진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 Non Government Organization(NGO)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와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이 하루속히 이 땅에, 특별히 제가 있는 씨엠립 지역, 우리 교회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을 돈 벌러 길거리로 내몰지 않고 우리 유치원으로, 학교로 보내고,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일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일으키는 우리 퀸즈장로교회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재능 기부와 물질 기부, 그리고 더 나아가 전방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로서 많은 성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CHILDREN

황미희 집사/ 할렐루야찬양대 반주자

**C**HILDREN ARE GOD'S GIFT

**H**ELP THEM GROW

**I**NDEPENDENTLY, INDIVIDUALLY WITH

**L**OVE AND CARE

**D**O YOUR BEST WITH ALL THE

**R**ESOURCES AROUND

**E**SPECIALLY

**N**URTURE THEM WITH GOD'S WORD & LOVE

## 한 모퉁이의 고목나무가 되어

윤지숙 권사



일 년에 한 번씩 어머니 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식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뿌듯함과 보람됨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이 커서는 의지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모든 어머니들의 소망입니다. 때로 자식이 결길로 가기라도 하면 또는 병으로 아픔을 호소라도 하면 가슴 한쪽이 면도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죄책감으로 힘들어 합니다. 푸근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무엇이든 다 들어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이 없음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어머니입니다.

남편의 병고로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날 때, 깊은 밤 사랑하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찬양하게 하시니 자식은 그런 위로의 선물이며 울타리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날 함께 식사해요” 자식의 이 말 한마디에 섭섭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없어지는 것이 또한 어머니들의 마음인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93세 까지 사시며 새벽제단을 지켜 오신 육신의 어머니 권사님과 교회의 영적인 어머니 권사님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믿음의 3대가 한 자리에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래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가정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며느리가, 우리의 손주 며느리가

이어지며 같은 목적과 믿음과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칠순을 바라보는 이즈음 바람이 있다면 시골 동네 어귀에 서 있는 고목나무처럼 교회 한 모퉁이의 고목나무가 되어 날아다니는 새들도 쉬어가고 무성한 나뭇잎 아래 긴 나무의자를 만들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때론 독백처럼 토해놓는 젊은이들의 말을 그냥 조용히 들어주는 그런 고목나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감사함은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하며...

2013년 5월 12일 어머니 주일



## 축제

이정훈 집사



축제: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혹은 잔치 (국어 사전)

퀸즈장로교회는 전통적으로 5월 말의 Memorial Day에 즈음하여 ‘전교인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단어에서 받을 수 있는 어감 그대로 ‘모든 교우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벤트’ 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의 title에서 오는 어감 그대로 모든 교인들이 적어도 한 가지씩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경쟁을 하고, 결과적으로 승자와 패자가 있게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올해 초, 몇몇 교우 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쟁을 통한 체육대회도 물론 흥미롭지만 이젠 변화가 있어야 하는 않겠습니까?”라는,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당연한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 오던 고민이었지만 이처럼 여러 교인들의 의견까지 더 해지면서 올해 전교인 체육대회에 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concept을 바꾸어야 한다면 어떠한 방식이어야 할지, 프로그램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어떠한 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오던 가장 큰 issue, 즉 어찌하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만들어야 할지 등등 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우선 이벤트의 제목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벤트의 성격은 그 제목에 따라 concept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제목의 변화가 주는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하여 여러 교회의 관계자 분들과 논의 끝에 정한 2013년 전교인 이벤트의 새로운 title이 바로 “퀸즈장로교회 전교인 한마음 축제”입니다. ‘축제’에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모여 즐기면 됩니다.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자들만이 있습니다. 더하여, 자격기



준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하고 함께 즐기면 됩니다.

올해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통해 교회가 교우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처럼 부담 없이, 경쟁 없이, 스트레스 없이 하루를 함께 즐기는 concept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한 번쯤은 참여하고픈 프로그램을 준비하기위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한마음 축제

에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제기차기, 딱지치기, 공기놀이 등등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해보았을 전통의 놀이들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며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차세대 (유아부 부터 고등부까지 포함됩니다) 친구들이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 놀이들에 거리낌 없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워하며 ‘한 마음’으로 즐겼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상투적인 광고 문구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처럼 남녀노소 교우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를 찾아낸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2014년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우들이 ‘하나 되는 감동을 맛보시도록’ 해야 할지,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세대들이 문화적인 벽을 넘어 어르신들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할지, 기도를 통해 고민하고 또 연구하겠습니다. 급격한 concept의 변화도 거리낌 없이 이해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함께 준비하시며



땀 흘려주신 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경품 상품 협찬을 통해 도움을 주신 여러 단체 및 교우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물론, 좋은 날씨와 좋은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처럼 대자연 속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상황과 기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 나팔꽃 향수

곽상희 시인

사립문 닫힌 시골 외할머니 집 나팔꽃  
넝쿨에 아슬아슬 매달려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아침 햇살이 등을 흔들어 깨운다  
사르르 눈뜨는 나팔꽃  
푸른 초롱불

담장에 걸린 송이송이 초롱불  
외할머니 하얀 버선코가  
기지개를 켜다

동박새 울음 울어  
착한 영혼들 잠을 깨운다

\* 곽상희 시집 <고통이어 너를 안는다>에서 퍼온 글

## 아버지 주일에

강진영 집사 / 영아부 원서 아빠



사랑하는 나의 아들 원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철없는 생각으로 가득 찬 나에게 사람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준 너. 언제부턴가 불쑥 네가 나타나서 나를 아빠로 만들어 놓았구나... 해맑은 너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너에게 모범이 되는 인생의 선배가 되기 위해 분발하게 된다.

네가 처음에 우리에게 왔을 때 솔직히 실감이 안 났지... 출산 예정일보다 몇 주 일찍 찾아온 네가 분명 내 앞에 있었건만... 이게 우리 아들이냐 실감이 안 났었지. 지금이야 네가 하얀 피부에 광이 나 사람같이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이 아빠처럼 새까맣고 짜글짜글^^ 지금 너의 모습은 다 너의 엄마의 기도와 주님의 은혜다.

네가 백일이 좀 지나 열 감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손등에 바늘이 꽂혀 있는 너를 엄마와 내가 아침저녁으로 지킬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네가 내 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나.

더욱이 네가 본격적으로 똥을 싸기 시작할 때 처음 너의 똥 기저귀를 갈 때 정말 난감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냄새는 나고 너는 마구 울어제끼고... 아~!!! 그러나 곧 적응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물 불 안 가리고, 손에 묻건 말건 이 아빠는 다이퍼 specialist 가 됐다. 이제는 네가 잘 가리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로인해 난 점점 아빠는 모습을 찾아갔다.

너로 인해 아빠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되었다!!! 네가 있기 전의 세상과 네가 우리에게 온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오래전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해 주시던 일들을 다시 더듬게 되고 감사하게 됐다.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네게 가르쳐 주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생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않고 너의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이 나이 많은 아빠가 가장 바라는 바다.

원서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너로 인해 아빠는 이전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을 더 넓게 깊이 바라보고 전에 느낄 수 없었던 다양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너와 같이 지내온 3년의 시간 동안, 나이 많은 초보 아빠는 참 많은 실수를 했지만 다행히 네가 기억을 못할 것이니 감사하구나!! 이제는 정말 너의 훌륭한 인생의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 완전한 행복과 안식

편집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고 누리기 위해 순간순간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 사랑과

행복을 찾기 위해, 지위와 명예를 얻고 부귀와 장수를 누리기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시간과 공간을 가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릴 수 없으며, 완전한 행복이나 만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절마다 독특한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변화의 멋을 즐기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태양과 낭만의 계절인 여름이 오면 즐거움이나 멋보다는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온 몸과 마음이 지치고, 끝없는 갈증과 쌓이는 피로에 감사 대신 불평과 짜증이 나곤 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름이 오면 참된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들을 VIP로 초대해 주십니다.

번거로운 예약이나 비싼 입장료도 필요 없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고귀한 여름날의 향연-2013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은혜와 진리의 사자 한기홍 목사님(남가주 은혜한인교회 담임)을 강사로 모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행 13:21-23)라는 주제로 6월 27일(목) 부터 6월 29일(토)까지 시원하고 호젓한 Hudson Valley Resort 에서 새벽이슬같이 가슴에 스며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부의 여름 캠프와 여름 성경학교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되어서 온 가족들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반석에서 솟아 나오는 생수를 마음껏 마시며 감사했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깊어간 밤, 사랑하고 섬기며 넘치는 은혜와 감사를 세어보며 보낸 2박 3일의 휴가에서 맛본 행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시에 감사드리며, 그 행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복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1)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심, 2) 맡은 일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3) 무엇이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중심, 4)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중심, 5) 철저히 회개하는 중심, 6) 환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중심, 7)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 8)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 9)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중심, 10) 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중심, 11)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중심, 12) 평생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중심, 13)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왕은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죄사함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 성공의 축복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고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헛된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쾌락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다윗왕이 누렸던 그 축복과 행복을 받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 전교인 여름 수련회 간증

나인애 권사/ 4교구 롱아일랜드 10지역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 아들은 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중, 고등부 수련회에 가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보냈고, 저는 오늘 시작되는 수련회에 어머니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어머니 건강이 좋지않으셔서 저 혼자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제 큰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아들에게 화를 내어 마음에 상처를 주어 제 마음이 힘든 상태였고 몸도 너무 피곤하여 3시간을 혼자 운전하며 수련회장으로 가는 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과 연결이 되어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되었고 오는 도중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었고 한 시간도 안 걸린 것처럼 쉽게 올 수 있었습니다. traffic이 적은 길로 오는 길도 배울 수 있었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본 교회 출석을 했지만 저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 매번 예배 만 드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교회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아이들이 교육부 수련회에 잘 적응하여 같은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었지만 전혀 저를 찾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찾아야 되어 감사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일까 늘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한기홍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중심’의 말씀을 듣고 저의 이기적이고 나약한 믿음을 회개했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의 스케줄을 맞추기 보다는 나와 아이들의 스케줄에 중심을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부터는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의 스케줄에 맞추어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매주일 롱아일랜드에서 교회를 나올 때 마다 저와 아이들은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옮기자고 수없이 말했지만 저의 어머니는 교회는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여 치유와 평안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저에게 너무도 과분한 권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건강을 찾고 내 삶이 평안해지니 다시 나태하고 이기적인 믿음 생활이 되었습니다. ‘관용을 베풀고 의리를 지키는 중심’의 말씀처럼 환난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의리를 지키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권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윤영 집사/ 6교구 베이사이드 8지역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귀한 말씀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기홍 목사님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믿음으

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항암을 시작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엄마인 제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박한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저는 아들의 아픔을 인하여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인도 하셨습니다. 이전에 저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사모 했습니다, 사업이 잘되길 원했고, 앞으로의 안전된 삶과 아들의 미래와 우리 부부의 노후,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며, 원했던 비전들이었습니다. 나의 귀한 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백혈병이라는 진단에 우리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 가지 아들을 살려 달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마다 걱정과 낙심 보다는 감사와 찬양은 또 사순절 새벽기도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암송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아들은 1년 반 정도 넘게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지명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들이 여름수련회 기간 동안 올라와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친구들과 간증으로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번 수련회에 잘 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 드립니다. 불리한 환경과 조건을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정을 영적, 육적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춘광 집사/ 3교구 플러싱 3지역



먼저 저에게 많은 은혜를 받게 한 한기홍 강사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퀸즈장로교회 목사님들과 그 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같이 늘 믿음의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퀸즈장로교회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세요.”라는 것이 전부였던 저에게 매일과 같은 신앙고백 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저의 과거를 용서해주세요. 저의 힘이 되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늘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면 상담이라도 하련만...”하고 아버지를 그리던 저에게 퀸즈장로교회는 영적인 아버지, 원로목사님, 담임목사님, 전도사님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주님은 역사하시며 사랑의 종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 해 주셨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고백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기홍 목사님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고백을 하는 거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처럼 퀸즈장로교회는 저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첫 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늘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집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기독교 문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정훈 집사 / 청년 3 부장



뉴욕에 사는 Chelsea는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고 찬양과 율동을 잘하는 아이로, 집에서는 엄마, 아빠와 전혀 문제없이 지내는 아이로, 학교에서는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 선생님께 사랑도 많이 받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흠 잡을 곳 없고 교회 생활에도 열심인 아이입니다.

다만, TV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Chelsea가 너무나 좋아하는 갖가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들이 무궁무진하게 상영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초조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는 최신 TV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보아야만 친구들과 ‘말이 통합니다.’ 이런 Chelsea의 지나친 TV시청을 관리하기 위해 엄마 아빠는 많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TV 30분 시청을 위해 독서 2시간하기’, ‘모든 TV시청은 엄마 아빠의 허락 후에만 하기’ 등등 상상가능한 모든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Chelsea는 단 30분의 TV시청을 위해 2시간 혹은 3시간의 독서를 합니다. (사실, 독서는 Chelsea가 그리 즐겨하는 취미가 아니므로 Chelsea에게 2시간의 독서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 30분의 TV시청을 위한 2시간 이상의 독서. 하지만, Chelsea를 비롯한 수많은 이 땅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TV가 없는 그들의 세계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단 비기독교 어린이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만나는 율동 잘하고 목청 높여 찬양 잘하는 기독교 어린이들에게도 TV시청이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정에서 그들의 TV시청을 감독하고 세속의 문화로부터 그들을 격리(?)하고자 해도 현대 사회, 그것도 고도로 문명화된 미국의 사회에서 이는 실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젯밤에도 여러분과 이처럼 실랑이하고 논쟁했을지 모릅니다. ‘All of my friends watch TV every night, and they watch the Disney Channel. The Disney Channel is for kids. Why don’t you guys let me watch a kids channel while everyone else watches it?’ 아이들의 이러한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Jesus is my Superhero” 찬양집회는 이러한 아이들의 물음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 엄마 아빠들의 대답입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세속의 문화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이정표입니다.

‘하랑예찬’ 팀은 2010년 조직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뉴욕 지역을 대표하는 장자 교회인 퀸즈장로교회에 교회를 ‘대표’ 할 만한 어린이 문화사역 팀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겠다는, 어찌 보면 막연(?)한 소망으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전례가 없던 모임인 관계로, 다소 부족했던 초기 전략과 기획 등으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나’ 이에 관한 이정표



는 부족했던 아이들과 부모들의 모임이었기에 신앙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하랑예찬은 기본적으로 멤버 어린이 부모님들의 월 회비를 통해 운영됩니다) 좌절하고 싶었던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화려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세속의 문화에 대항하기 위한 하랑예찬의 기도와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이번 찬양집회를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부족했던 기도와 준비에 비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낯선 하랑예찬의 앞으로의 갈 길 또한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지난 6월 8일의 “Jesus is my Superhero” 찬양집회는 기본적으로 Australia의 어린이 찬양 ministry인 Hillsong Kids의 찬양곡들을 통해 드러진 집회입니다. Hillsong Kids의 많은 찬양들은 이미 쿼터를 비롯한 많은 교회의 어린이들이 즐겨 찬양하는 곡들이며, 많은 어린이들의 귀에 익은 우수한 곡들입니다. 실제 이번 찬양집회의 대부분의 찬양곡들이 Hillsong Kids가 평소 즐겨 공연해 온 곡들입니다. 특별히 찬양집회의 title이 된 제목은 Hillsong Kids의 찬양곡인 “Jesus You’re my Superhero”에서 modify된 제목이며, 이번 찬양집회의 목적과 Concept을 그대로 말 해줍니다. 세속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자극적일지라도 우리 기독교 어린이들의 ‘진정한 Superhero는 결국 예수님’임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알리기 위함이 이번 찬양집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전례가 없던 행사, guideline으로 삼을만한 예도 없는 행사, 예산의 많은 부

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행사 (실제로 전체 행사 예산의 약 70% 정도를 하랑예찬 자체의 fund-raising으로 담당했습니다) 등등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사(?) 이었지만, 역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퀸장의 수많은 조력자들을 통해, 영아부에서 QPEM에 이르는 전 교육부서의 단합된 노력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 하셨습니다. 무대의 screen을 위한 visual 영상 제작을 위해 밤을 새운 청년들, 말씀 준비를 위해 갖가지 의상을 손수 준비하시고 리허설까지 열정적으로 진행한 김도현 목사님, 행사 당일 700인분의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금요일 밤부터 교회에서 밤을 지새운 많은 엄마들, 무대 디자인을 위해 수백 개의 풍선들을 손이 부르도록 불고 붙여주신 집사님들, 어린 동생들의 집회를 위해 아침부터 교회에서 staff로 열심히 뛰어준 중, 고등부 teenager들, 행사 준비기간 전반에 걸쳐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cheer-up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등 이루 말씀 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찬양 집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고 support해 주셨습니다.

이번 찬양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퀸즈장로교회가 ‘어린이 기독교 문화의 center가 되는’ 그 것입니다. 뉴욕 지역을 대표하는 장자 교회로의 역할을 지나 이제는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차세대 크리스천들을 위한 문화를 기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타 교회들이 아직 꿈꾸지 못하는 가슴 벅찬 기도 제목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실력자들을 퀸즈장로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실력자들이 이러한 우리의 문화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이 기독교 문화의 center’... 기도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미리 기뻐지는 title입니다. 이를 위한 첫 발은 이미 내딛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 전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퀸즈장로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이러한 기도제목과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중심이 되는, 실로 가슴 벅찬 그 날을 꿈꾸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랑예찬의 찬양집회에 함께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수많은 교회 안팎의 여러분께 문안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Yes, Jesus is my Superhero!”

## 천국의 주인공들의 잔치

편집부

눈부신 햇살 아래 만발한 꽃들의 미소가 싱그러운 아름다운 5월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복된 가정의 달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5월의 첫 주인 5월 5일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오후예배를 어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이 날에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초등부 6학년 어린이들이 맡아서 진행했으며, 박은호군의 사회로 시작되어 팽소영양의 기도, 권은지양의 성경 봉독에 이어 유, 초등부 찬양대의 힘찬 찬양이 있던 후에 이명옥 전도사님께서 “한나와 사무엘”(삼상2:26)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여 사무엘과 같은 귀한 일군으로 자라나도록 하자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유아, 유치부 찬양대의 헌신 찬양에 이어 헌금 시간에는 유스오케스트라의 특별 연주가 있었으며, 이신권군이 헌금 기도를 한 후에 어린이 주일의 특별 순서인 축복 기도 시간이 되어 우리 교회의 막내인 영아부와 유아부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 나와서 원로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제원군이 긴 광고를 능숙하게 한 후에 모두 일어나서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송하고 원로 목사의 축도로 어린이 헌신예배를 마쳤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어린 학생들이 또렷한 한국말로 모든 순서를 너무 잘 진행해서 더욱 감격스러웠으며, 천국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고자 다짐하고, 또한 가정의 꽃인 어린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

편집부

신록이 우거지고 태양이 그 열기를 더해가는 6월 하순. 모든 학교들이 방학과 졸업업을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우리 교회 학교도 6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를 졸업 예배로 드렸습니다.

교육 부장 홍승룡 장로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영일 집사의 기도, 계연란 집사의 성경 봉독과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에 “가장 좋은 학교 졸업생”(딤후3:14-17)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 주셨는데, 가장 좋은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곧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이며, 모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가르치도록 힘쓰라는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홍한나 집사의 헌금 기도에 이어 사회자의 학사 보고가 있었는데 금년의 교회 학교 졸업생은 총 242명(영아부 56, 유아부 37, 유치부 35, 유년부 32, 초등부 25, 중등부 29, 고등부 29)이며, 이어서 졸업장 수여 시간에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일일이 졸업장을 주셨고, “Do your best!”라는 간단명료하고 의미 깊은 훈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졸업생 대표로 최대영 학생의 답사가 있는 후에 모든 12학년 졸업생들에게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안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특별 순서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22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감동적인 순서를 가졌으며, 광고 후에 다같이 일어나 ‘주님께서 세운 교회’를 찬송한 후에 담임 목사의 축도로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가장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졸업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들의 몸이 자라듯 믿음과 지혜도 함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특별히 집을 떠나 대학 캠퍼스로 갈 12학년 졸업생들이 교회학교에서 배운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히 쓰이는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Kingdom Rock: Where Kids Stand Strong for God

최은숙 집사 / 영아부 교사



이전과는 달리 금번 여름성경학교는 교회가 아닌 새로운 장소, 전교인여름수련회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솔직히 많은 염려와 또한 걱정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의 연중행사 중 VBS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저를 비롯한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새로운 말씀의 도전, 은혜의 재충전이 필요한데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가능치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었으므로 모든 영.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은 먼저 기도의 횃불을 밝히려 6월 첫날부터는 한 끼 금식기도로 힘을 모으며 성령의 기름잔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 했습니다. 그 기도는 VBS 2주전부터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의 새벽기도로 이어졌고 새로운 변화와 주어진 도전 앞에서 겸손히 모든 선한 것으로 협력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행될 순서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석할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넘치는 은혜를 꼭 받게 되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금번 VBS의 대주제는 ‘Kingdom Rock: Where Kids Stand Strong for God’ 우리 삶에 반석이신 하나님, 그 보화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왕국위에 믿음의 반석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 같은 우리 아이들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VBS첫날, 첫 시간은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멋진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dress up을 하게 했고, 준비된 왕좌에서 공주와 왕자의 모습으로 사진촬영을 가졌습니다.

소주제 인물로는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모두 4명의 성경속 인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치며 승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시아, 어린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 느헤미야, 포로된 바벨론에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축과 이스라엘백성의 새로운 영적 회복을 리더한 사람. 에스터, 나라의 위기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의 모범이 되었고 그 민족을 구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VBS동안 위의 4명의 인물들에 대해 배우며 아이들은 교회를 위해, 하나님나라를 위해 “Stand Strong for God”을 외쳤고, 이 기쁨은 다시 매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제송 “We’ll Stand Together”을 부르며 인생의 깊은 밤에도 반드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후 푸른 들판에서 아이들은 재미있는 게임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웃으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 찬양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댄스타임을 가지며 모든 부모님과 아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금번 VBS에 참여한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획대로 도착되지 않았던 준비해야할 물건들로 가슴을 조리시던 전도사님, 잘 준비했으나 먼 곳까지 옮기던 중 파손된 물건으로 안타까워하며 전체 데코준비로 먼저 애쓰신 많은 선생님들, 성경공부에 맞는 은혜롭고 재치만점이었던 성벽과자와 에스터를 생각나게 했던 별모양 수박간식으로 시간시간 애써주신 선생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며 시간을 드러 헌신하신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배운 4명의 성경속 인물들 다윗, 요시아,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터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와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일어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과 저의 삶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시종을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하나님과 함께한 VBS

최효진 집사 / 유아부 교사



올해 VBS는 예전과는 달리 전교인 수련회와 함께 하게 되어서 맘속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익숙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과 불안한 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했던 것은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아이들의 참석률이 제일 걱정이 되었습니다. 유아부의 부모님 중에는 영아부의 아이들까지 유모차에 싣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2박 3일간의 기간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VBS와 수련회를 위한 고리 금식기도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과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의 등록수가 100명 정도가 된다는 소식에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직장을 마친 후, 수련회 하루 전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VBS를 준비하며, 자정이 지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데커레이션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올라올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호텔의 한구석이 중세기의 성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013년 VBS의 주제는 Kingdom Rock 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세팅은 영아부 심경선 집사님의 지휘아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기로 돌아가 갑옷을 입은 기사와, 견고한 벽돌로 된 성과, 왕관, 왕좌 등이 아름답게 준비 되었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교회에서 올라온 교인들과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흥분한 목소리와 감탄이 나오고, 아이들과의 2박 3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고 온 아이들은 멋지게 옷을 입고, 아름답게 차려 입은 선생님들께 안내를 받으며, 왕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도착 기념사진을 찍고,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또 버블 놀이를 하며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예배 이양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진지한 표정으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의 단맛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무릎을 꿇고 함께 드리며, 종이 백으로 벽돌을 만들며 한단씩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유치부 황옥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난 게임으로 부모님들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들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즐거워했습니다.

둘째 날은 요시야 임금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아이들이 어리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며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밤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억수같이 내려 다음날 있을 야외에서의 게임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위가 한풀 꺾여 아이들이 야외게임을 하기에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야외에서의 게임은 보통 교회에서 VBS를 할 때 할 수 없었던 재미난 게임들로 준비되어서 아이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녁에 강지영 전도사님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영아부 동생들을 초청해서 조그만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인형극을 보면서 “다윗 이겨라”를 힘껏 외쳤습니다. 인형극을 지도한 유아부 구현선 선생님이 골리앗을 섭외하며 바쁘게 뛰어다닌 보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진 골리앗은 아마도 아이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담대히 나간 다윗의 용기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당히 서는 아이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어떻게 한사람의 순종과 중보기도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는지, 왕관을 쓰고 예쁜 에스더 왕비가 되어 설교를 하시는 강지영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과 중보기도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유아부 이진이 선생님이 인도한 3일간의 찬양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 앞에서 VBS동안 배운 찬양을 무대 위에서 발표하며 아이

들은 마치 스타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길 줄 알았던 2박 3일의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났습니다. 보통 오전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던 VBS에 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아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집회에 참석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부모님들께서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셔서 제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가족 수련회때 집회의 긴 시간동안 아이들을 돌봐주시느라 수고해주신 전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VBS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신실히 응답하신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교회와, 아이들을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명옥 전도사님, 이양미 전도사님, 그리고 강지영 전도사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로 동참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과 아름다운 팀워크로 함께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주의 은혜로 일을 한다는 것!

황옥지 집사 / 유아부 교사



진실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번 VBS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게 된 VBS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일한다는 것!

어려서부터 친정어머니를 통해, 교회 권사님들과 주께 평생 헌신하겠노라며 신학 대학을 가는 선배들을 통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 때마다 가슴 깊이 느끼는 것보다는 그저 아주 어려서부터 들은 말이라 그냥 머리로 들곤 했습니다. 그 분들의 눈동자에 은혜가 가득가득 있었음에도 말이지요. 하지만 이번 VBS에 유치부 캠프장으로 섬기면서 그 분들의 말씀이 계속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또한 주의 은혜로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 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30여명의 유치부 아이들과 불과 7명의 헌신하시는 선생님. 하지만 그것도 일이 있으셔서 두 분은 번갈아 헌신을 하셔야 해서 실제론 6명의 선생님이 30여명의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VBS를 진행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셨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정예부대 7명과 함께, 앞에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유치부 외의 그 많은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칠 만도 한데 뛰고 또 뛰고, 다리가 아프고 피곤할 만도 한데 이리저리 다니며 일을 하는 동안 깨달은 것은 ‘이것은 내 힘이 아니구나!’ 이었습니다. VBS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계셨고, 또한 제게 꼭 필요할 때마다 더없이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손이 모자랄 때마다 유아부에서 초등부에서, 진행부에서 때를 따라 꼭 필요한 도움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그 감동은 여전합니다. 어찌 감히 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2박3일을 뛰어 다닐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둘째 날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확인한 날씨에는 “낮 최고 기온은 준비한 야외놀이를 하기에는 턱없이 낮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놀이들을 변경해야 하고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제 믿음의 바닥을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VBS를 진행하는 유치부와 유아부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올라오지는 못하셨지만 함께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었음에 오전의 교사 회의를 마친 1시간 여만에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고 아이들이 놀기에 최고로 좋은 날씨와 기온이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도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전을 다시 재건한 느헤미야, 8살의 어린나이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한 요시아, 무서운 사자와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듣는 말씀은 그야말로 아이들보다 제게 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벧전 4:11) 아멘.

주의 은혜로 일한다는 것! 그것은 육신의 곤함도 이길 수 있는 힘ियो, 마음의 무거움도 날려 버릴 수 있는 권능ियो,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넘치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왜 어르신들이 은혜로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지 이제야 조금 가슴 속으로 깨닫게 되는 VBS이었습니다.

평생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거친 파도가 일고 주저앉고 싶을 때 주만 의지하며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유치부 어린이와 선생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Stand Strong for GOD!





# 유년부 여름캠프

채영주 집사 / 유년부 부장



이번 여름 유년부는 아이들과 함께 뜻 깊은 여름캠프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시간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초등부의 선배님(?)들과 함께 유년부 동생들이 몸과 마음으로 뛰고 외치며 드리는 찬양은 유년부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나고 기쁜 시간임이 확실했습니다. 아이들이 입술로 “Jesus, you are the savior of my soul, and forever and ever I’ll give my praises to you”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할 때에는 아이들의 얼굴들이 얼마나 밝고 예뻐 보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 들었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Kingdom Rock이라는 주제로, 강사이셨던 Peter Lee 전도사님께서 하나님나라 안에서의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의미들과, 또 더 큰 의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러웠던 우리의 삶은 모두 다 깨끗하게 씻겼다는 사실, 이제는 하나님나라의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우리라는 사실을 재미있는 영상과 예화들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셨고, 아이들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평소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특별활동 - 여덟 그룹으로 나뉘어서 진행한 친

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털실로 만들어지는 예쁘고도 신기한 모양들을 통해 한 가족임을 느끼는 아이스브레이크, 각자의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부채를 만드는 공작시간, 부모님이 적어주신 기도제목과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을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한 그룹별 기도회, 연구하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진행된 아침운동, 말씀을 실체화 해보기 위해 창의적이고 팀워크를 통해 만들어가는 쿠키로 캐슬 만들기, 아무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영과 물놀이, 목걸이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한 왕관 만들기 - 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여름캠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이들과 정말 가까워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 방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이틀 동안의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그 시간 동안 아이들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함께 함을 통해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깊어져 갈수록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 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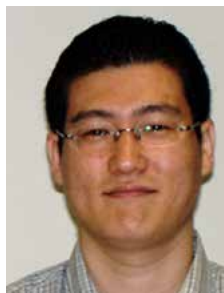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히려 아이들과 함께 할 때에 아이들을 통해서 그 모습들 로만으로도 사랑의 마음들이 생기고, 은혜 받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 하였습니다.

이번 여름캠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고,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점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 초등부 여름캠프

황성남 집사 / 초등부 교사



우선 이번 초등부 여름 캠프를 은혜가운데 다녀오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번 캠프에서 주님의 부족한 중을 캠프장으로 섬기게 허락하여 선생님들과 하나 되어 기도하고 준비하여 환경과 상관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에 두 가지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뜨거운 가슴의 고백이 없는 친구들이 고백의 순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시간은 최소로 하고 많은 대화시간을 넣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캠프 하루 전날 몇몇 선생님들과 선발대로 캠프장에 와서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었습니다. 유년부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캠프, 낯선 캠프 장소,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방 등으로 걱정과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만 의지해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그냥 주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예배 전에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유초등부 친구들은 Peter Lee 강사 전도사님을 통하여 “I Love you, Lord, you are my strength (Psalm 18:1)” 라는 주제 성구를 중심으로 예배시간마다 유초등부 친구들이 알아야 할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룹별로 성경공부 아침 QT를 통해 캠프기간 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룹별로 성경구절암송이 매 식사시간마다 있어

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낸 캠프였습니다. Mentoring시간을 통해 각각의 선생님들은 3명 내지 4명과 구원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교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날에 있을 skit presentation을 위해 캠프기간 중에 그룹별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초등부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숨겨진 달란트도 볼 수 있었습니다. Activity Station시간에는 그룹별로 성경구절 콘테스트, Art/Craft, 농구, 미니골프를 각각 30분씩 돌며 체험을 하였습니다. 미니골프와 농구코트거리가 꽤 멀었는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이동하며 즐기는 초등부 친구들이 대견했습니다.

둘째 날 예배 후에 김재형 전도사님의 인도로 기다리던 특별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학년들을 위해 서로 합심 기도하며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이제 초등부에서 다른 부서에서 섬기시는 김재형 전도사님을 위해 초등부친구들이 합심기도도 하였습니다. 1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이 흘렀지만 선생님들과 초등부 전체가 더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샘솟았습니다.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초등부친구들이 있었고 6학년들은 이제 중등부로 가게 되어 마지막이 될 초등부 캠프에서 정말 주님께 매달리며 또 후배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데 환경과 장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다시 깨닫고, 한편 걱정한 제 모습이 부끄러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캠프에도 당연히 동행하셨고 믿음의 고백을 이끄셨습니다. 초등부를 섬기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부 친구들과 동역하는데 힘쓰면 됨을 고백합니다.



## 2013 Summer Retreat at Hudson Valley Resort

초등부 / Lauren Kim 학생



This year at the 2013 summer retreat, things were different, better and new. We went Kingdom Rock at Hudson Valley Resort, and we had a new awesome pastor, Peter Lee. This year, we had many more exciting activities to do with our groups. While learning more about God, we also had an enjoyable time there playing diverse games and activities.

During the three days of the retreat, Pastor Peter Lee told us about why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why we have to respect our family and friends, and how sometimes we sin against God. On day 1, Pastor Lee told us about how important it is to respect your family and friends, since they care about you, and that unexpected things can happen any time and anywhere. On day 2, we learned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although he was dead, rose again on the third day to let us know that he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We also learned on day 3 that children our age can sometimes be so immature and make fun of and tease other people. With this being said, we all gathered, and prayed to stop the sins in our hearts by repenting. That same day, we received some upsetting news that Pastor Kim would no longer be teaching our grade anymore, and along with that, the 6th graders would be moving onto junior high school. There was a lot of sadness between all the students that day, whether it was to say sorry to God, or simply feeling sentimental about the miserable news. Thanks to Pastor Peter Lee, we all grew closer and bonded more to God, and with each other.

Besides the sermons that we heard, we enjoyed other activities as well. For ex-

ample, there were various stations that we could go to, such as an arts and crafts station, a memory verse station, and a golf station. At the arts and crafts station, we made our own handkerchiefs, with designs out of paint, which came out lovely. The memory verse station tested your skills on how much you know about the Bible. There was a golf and basketball station where we could exercise and have an amusing time. We also went swimming in the resorts' huge outdoor swimming pool, where everybody couldn't help but to get wet and simply have a blast! These are only a few activities that made this year's retreat so unique from any other.

In conclusion, I really enjoyed the 2013 summer retreat for all the reasons I stated above. Besides having fun, this retreat reminded me of great lessons that I will need to remember to live my life the way God wants me to. This retreat has been a remarkable experience for me, and I will always cherish these memories for the rest of my life. I would strongly recommend all students to attend and to participate next year since it can have a big impact in your life. You will definitely have an exciting time with your friends, but best of all, you will grow stronger in spirit, and embrace the words of God. And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thank all the teachers, Pastor Peter Lee, Pastor Kim, and the students for cooperating together to make this retreat significantly meaningful and fun.





## 2013년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며

심성희 청년 / 중등부 교사



우리 중등부는 여름 수련회를 가기한달 전부터 전도사님,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고리 금식 기도를 하며 수련회에서 받을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모여서 하루 먼저 떠났습니다. 수련회 가기 전부터 수련회를 가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가기 싫은데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온 아이들 그리고 친구가 가니깐 그저 따라온 아이들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가는 길에 길을 잃어서 4시간 만에 도착하여 다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저녁을 먹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신 하워드 윤 목사님께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자신이 겪었던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었는데 목사님께서서는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세상 사람들 눈에 성공해 보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외부로부터 초청온 찬양팀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 아이들은 매우 기뻐하며 찬양을 부르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친 후 기도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아이들끼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기도가 마친 후 우리 중등부는 따로 모여서 세족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아이들 발을 씻겨 주시며 닦아주시는데 아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치다가 나중



에는 숙연하게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였고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서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가서 발을 닦아주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아이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며 미안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출발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간증을 쓰는 시간을 가지며 정리하였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일, 형식적으로 찬양하였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는 수련회였다고 아이들이 이 간증을 통해 고백함을 보며 사춘기의 나이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은혜의 자리에 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믿음이 변치 않고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도 아이들에게 귀한 믿음을 물려주시고 점점 약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기도로 도와주세요.



## 중등부 여름캠프

Ashley Koo / 중등부 학생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로 온 복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허드슨밸리 리조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예배는 놀라웠습

This retreat was truly a blessing from God. I really felt the unity of our church as we came to Hudson Valley Resort to experience God's Word and presence. The Wednesday night service

니다. 최신기계와 “연기”나는 조명등 새로운 찬양과 찬양팀, 그리고 새로 오신 강사목사님! 이 모두가 저를 감동케 만들었습니다. 찬양팀중에서 찬양의 음악으로 저의 몸이 전율을 느끼도록 하는 찬양을 하는 찬양팀을 이 전에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찬양가사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이 저를 향하게 하심을 찬양가사로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셀라 찬양팀은 저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것이 좋았고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멤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온 맘을 다해 찬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강사로 오신 하워드 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말씀은 제 맘속으로 깊게 들어가 제가 오랫동안 회피했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살아 역동하지 않는 우리는 실패자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삼손과 기드온은 영웅이었습니다. 시작은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후에 그들이 겸손하여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만이 이 모든 능력의 하나님께로

was shocking to me - all the advanced equipment, the “fog”, the new praise songs and praise team, and an unknown guest pastor. It was all very overwhelming. I’ve never praised in an environment where the music seems to be pounding throughout your body, and the lyrics resonating in my brain.

I truly saw God’s precious love for me through the lyrics. The Selah Worship Team was beyond amazing! I learned to love the new songs, and their “angel-like” voices helped me to have such a wonderful time reveling in God’s glory. More importantly, Guest Pastor Howard Yoon’s sermons really dug deep into topics which I had been avoiding for a long time. He taught us how we are nothing without God and how we are sure to be failures without the Spirit of God living in us. Samson and Gideon might not have started out as heroes in the beginning, but in the end, they were humble and had faith in God, and understood that ev-

만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영웅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햇빛과 푸른 하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의 간증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저의 모든 삶을 되돌아 볼 때 저는 사회에서 아주 ‘큰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저의 이기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저는 저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다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장 축복되며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everything came from God.

This retreat was one of the most blessed ones I have ever experienced. God gave us great weather - all sunshine and blue skies. My personal retreat experience was that I really felt the presence of God, and I begged Him to tell me what His will for me was. All my life, I've wanted to be someone 'big' in society. Now I realize that this was all from my selfish desires. At this retreat, I gave my life to Christ, and promised to Him that I would do whatever He wanted me to do.

## 장수 비결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카프카스 지방은 유명한 장수 지역이다. 그곳 노인들의 장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다. 포도주를 마실 때도 “멋진 자연에 건배!”,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도 “음식을 만들어준 여성에게 건배!” 등 자기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 우리는 매일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는가?

Joseph Koo / 중등부 학생



이번 수련회에 저의 바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능력자로, 만나는 것과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과 같이 오셨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장 좋았던 것은 설교말씀과, 같이 부르는 찬양예배였습니다. 하워드 목사님의 훌륭한 설교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감동케하여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무엇인지를 그분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셀라 찬양팀은 달란트가 많은 그룹으로 우리를 진실 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찬양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번수련회가 완벽하게 되는 시간으로 또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었습니다.

At this retreat, I wanted to meet Jesus personally, strengthen spiritually, and get to know what it means to be a true, loyal Christian. This retreat wa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really come face-to-face with God. The best part of this retreat were the sermons, along with the praise and worship. Pastor Howard Yoon was great. His sermons were very inspiring. I learned much from him as a Christian.

The Selah Praise Group were a talented group of people that sincerely wanted to lift the Lord's name on high. Overall, this retreat was a perfect time to really strengthen as a Christian.

Deborah Ruiz / 중등부 학생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없는 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일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 때문 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하는가? 에 따라 결과를 보지만 이 곳의 삶으로 인한 결과의 삶으로 인해 영원한 삶에서는 더 커다란 결과로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의 삶은 잃어버렸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자주 빠졌습니다. 어떻게 찬양과 하나님께 모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하는 지도 못 느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임

This retreat has taught me that without God I am nothing. Without God, I am just a person living with a meaningless purpose. We can't be ashamed of showing our love and devotion for God because of what others may think of us because their thoughts aren't what is important - what God thinks of us is important. How God sees us act on this earth is important. We only stay on this road for a very short amount of time, but what we do with our lives during this time is what determines the rest of eternity.

Before, I was lost and I skipped church. I forgot how it felt to praise and worship God whole-heartedly. Sometimes I even doubted His presence. I felt so alone and abandoned. I thought that maybe He abandoned me. But it was actually I who trailed away from Him.

재하심에 대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의로웠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진 않았을까 하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다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모든 일을 하시려고 미리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번 수련회 후에 집에 가서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것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만을 찬양 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시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성령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창조주의 손안에 있음을 알고 깨달아 놀라운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Thanks to this retreat, God is back in my life. And He already made me do things that I never would've done if I didn't have God. He gave me the courage to do so many things. I pray that after this retreat ends and we go back home, I'll continue to love and praise God everyday. I pray for those who have met God over this retreat to not lose sight of Him, and for the ones who haven't felt the Holy Spirit in their lives, I pray that they do because it's such an amazing feeling to know your life is in the hands of the creator of everything.

### 성공한 사람이 선호하는 색

색채 심리학에서는 노랑 같이 밝은 색을 좋아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반면 이미 성공한 이들은 대개 검은색을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성공 뒤에 보이지 않는 불안이 은연중 표출돼 검은색을 선택 한다는 것이다. 검은색이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고등부 수련회

Jennifer Choi / 고등부 학생



At this retreat, God saved me. I know it doesn't seem like it but I'm a complete mess inside. Every day was a struggle for me. I've been in pain for a while and I developed a really low self-esteem. I never really tried to go to God for healing but during this retreat, I suddenly became so hungry for Him. I reached out to Him and poured out my heart, letting all the pain out. And at that moment I met God again. He began to heal me on the first night and even now I can feel God working in me. I realized that I am a priceless child of God who loves me so much and that I should never feel worthless or feel that I'm not good enough because I am God's creation.



Joseph Hur / 고등부 학생



Throughout this retreat, I felt the presence of God coming upon Senior High. During this whole year of 2013, I didn't really get to pray or praise God that much



because of my studies. In the beginning, I felt pretty disappointed because of my team, but later I became closer to them. The morning and night praise was memorable. I saw all of Junior and Senior High dancing, jumping, and screaming for God. I never saw people jump on the stage for God, and we started dancing like crazy. I became closer with new people and people I didn't really like.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e received will not die down, but we will show the world our faith.



Zach Fu / 고등부 학생



Before this retreat, I always attended church passively listening to the sermons but not really taking into account the messages that were being told. I have probably been the most disconnected from God this past year from work and family related problems. Until the retreat, I didn't really think it would be different from all my past retreats. But boy, was I wrong! It really opened me up from my deepest burdens. I remember giving it all to God on the second night of worship. I just asked Him to show me His glory and that if something was to change inside me, I had to hand my life over to Him and let Him be the truth and the light to my decisions. And when Pastor Howard prayed for me, I was overwhelmed with tears because he knew EXACTLY what I was faced with. I was awestruck at the fact that Pastor Howard was able to just magically sense my problems. But then I realized that this is who God is. He is so almighty and works in countless ways. The way God used Pastor Howard to pray for us was a true blessing. And I'm

sure that many of you guys also were amazed at how he knew your problems as well. Even on the third night of the retreat, I was bawling my eyes out with snot everywhere while everyone was praying. I felt the Lord just fill the room with His presence. Although this was my first time ever in a Korean church, I really found a great community of people during this retreat. From the friends I made so far, I can tell how great this ministry is. Everyone was so kind and loving and it's pretty darn cool how open everyone was to me in four days! That doesn't usually happen outside of church... I can't wait to go on more retreats and participate in more events here.



Angela Kim / 고등부 학생



This retreat was truly a blessing. I think the retreat took place at a perfect time because I just finished my sophomore year and the last couple of months were really stressful. I had become very lazy to come out to church and I was angry with God for many reasons. But at this retreat I was really able to encounter Him and feel His presence. At this retreat I learned to forgive and let go, something I should have done a long time ago. After this retreat, I was able to realize that He is with me at all times because He has worked miracles in my life in very mysterious ways. He really does answer our prayers and He really is a living God. I'm really glad that I was able to encounter God once again, and I can't wait to continue to grow in my faith towards Him.

Han Yi / 고등부 학생



I have strangely encountered God at this retreat. This was my second retreat and I really felt that God was especially with me. Last winter retreat was the first retreat I have been to and I honestly felt nothing at all. This retreat was a whole different experience. I really felt that God had me on His back. The first two nights I felt spiritually deprived and I constantly yearned for His presence. The third night was where I really felt His presence and the answers to my prayers. Praying for hours and unexpectedly crying I felt that I have opened up to God. That night, I forgot about everything and just prayed and cried my soul out...



# A Valedictory Message

Tamara Kim / 고등부 학생



Senior High really saved me. I think in moments of weakness you really need a helping hand and I received it here. Through the people here and their encouragement I was able to really meet and encounter God. So don't take this journey lightly. The Holy Spirit is always moving in you guys, so never doubt or be afraid! God is always with you.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darkest valley,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Psalm 23:4

Wow, this retreat was definitely a great ending to my experience at Senior High. I know I am just the weird tall girl that greets you at the door, but I have been praying for you guys for a long time. Prayers are so powerful and I think God really heard them. I witnessed everyone grow and mature in Christ. It was amazing to see. Since this is my last post for you guys, I shall give you some advice: NEVER WAIT – Start now.

If you want to really grow spiritually and faithfully, go after it. Seek, find, love, pray, and read God's word. Also listen to Pastor Steve! He is such an amazing spiritual mentor and teacher. He will really help you out! Become best friends with him he will give you the best advice on everything.

Well, this is basically my farewell letter to you guys. The fire is already burning inside you guys. Keep going guys. You will do great things for God's glory and kingdom. Never be afraid, but be firm in your faith. Always encourage one another and do everything in love. You guys meant everything to me. My KAPCQ family, I love you.

# Summer Retreat - QPEM Reflections

김도현 목사 / QPEM



It was wonderful to join together with our KM family in the church-wide summer retreat. Our QPEM members were able to fellowship with some of the KM families and grow together in relationships.

The biggest positive was that 8 QPEM families were able to attend the Summer Retreat. This was another opportunity for them to hear God's Word and spend time away in prayer. Many of our adults attended the college/youth group services to hear the messages. Our children also had a wonderful time in the children's program.

This was also the first time that our College students joined the Junior and Senior High in their worship. Although the worship and messages were excellent, the "focus" was definitely on the youth. As such, our college students felt that they were just "added on" to this retreat and didn't feel that this was a retreat for them. I believe we need to rethink the plan of joining the college students with the youth group next year. The age gap from a 7th grade student to that of a Senior in college is almost 10 years. That's too great a gap for the speaker to hit in the messages.

One final recommendation is that in the future, college students should not be allowed to be the volunteer teachers for other children's ministries at the retreat. Several college students attended but served as teachers and so they were not able to participate in the college worship services or activities. These students really need to hear God's Word and take part in their once a year college retreat.

God bless.

## 제 4회 새아가 환영회를 준비하며

권명선 집사 / 솔이 엄마, PTA 회장



2009년 겨울 첫아이 율을 안고 영아부의 문을 처음 두드린 날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 주는 선생님의 따스함은 정신없이 육아에 매진하며 지친 저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는듯했죠. 저 자신도 주님의 자녀로 교회에 예배를 드림과 같이 나의 아이도 그렇게 키우리라는 당연한 생각으로 영아부에 간 저의 마음과는 달리 한주 한주 나에게 다가오는 영아부는 그야말로 어메이징이었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를 것 같던 아이가 어느 날 찬양에 맞춰 몸을 흔들기 시작하고, 말을 시작 할 때는 “아멘. 바이블. 예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를 하며 두 손을 꼬옥 모으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영아부의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저는 오늘 해야 할일이 있습니다. 영아부에 새아가로 오신 가정 한분 한분께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통화를 마치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새아가 가정에 드릴 선물 포장을 합니다. 임원들과 분주히 음식 준비와 새아가를 맞이할 마무리 작업을 마칩니다. 4년 전 그 누가... 아니 제가 알 수 있었을까요? 초보엄마의 영아부 첫걸음에서 이제는 새아가를 맞이하는 임원으로 저를 쓰실 줄은 제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작은 행함으로 인해 분명 또 다른 이를 쓰이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의 아주 작은 능력도 주님은 하찮게 생각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일합니다. 환영회에 오신 가정 하나하나 아이의 얼굴 한명 한명을 보면서 우리 아이만이 아닌 주님이 보내주신 모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시는 일에 저를 불러 주셔서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퀸즈장로교회로 인도 하시고 주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영아부를 알게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 영아부에서 12년

박선해 사모 / 영아부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퀸즈장로교회 영아부에서 우리 다섯 아이(박은호, 은현, 은도, 은선, 은미) 들을 이명옥 전도사님 지도아래 양육하시며 인도하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미를 2013년 졸업생으로 영아부를 떠나면서 맘이 뿌듯하거나, 시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 제 마음은 오히려 공허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결혼하면 자동으로 아내가 되고,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첫 아이를 유산 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가 자궁에 잘 붙어 있지 못하고 제 몸에서 엔티바다가 생겨서 아기를 가지려면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하셨을 때 많은 우울증으로 힘들었습니다. 또 제 남편이 장손이었으니까요! 그때 주일 예배 설교말씀으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고 앞으로 주실 아기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3개월 후 큰 아이 은호가 생긴 거예요. 보통 아기가 엄마 뱃속에 만9개월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마 몸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3개월 하면 12개월로 임신되기 전부터 엄마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독이 없도록 좋은 영양분과 식습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전문가가 말씀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은호가 생기기 전부터 은혜 받고 잠언과 시편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며 좋은 식습관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아부를 가고 싶어 그 복도를 맴돌았던 생각이 납니다. 은호가 태어나기 전 일주일 전 은호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환상을 통해 보여 주셨어요. 또 말씀으로... 저는 은혜 받고 가진 은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제 뱃속에 있으니 내 아기라는 생각으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은호를 낳은 후 매2년마다 아기를 주셔서 12년 동안 영아부에서 이명옥전도사님의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오전10시에 아침 예배드리는 것, 말구별, 시간구별, 거룩한 습관을 아이에게 많이 가르치자고 하신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심었습니다. PTA모임에는 잠언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 세우는 일,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여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신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영아부모임이라면 아침저녁 열심히 참여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또 앞으로 올 일에 준비시켜주셨습니다. 한 아내와 엄마가 아닌 가정의 선교사로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어린이주일 우리 이명옥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설교 제목이 한나와 사무엘이었습니다. 예배인도를 은호가 했지요. 잉태하지 못한 한나가 기도한 후 은혜 받아 하나님께 사무엘을 서원하고 또 그 서원을 지켜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한나! 또 그 한나를 권고하사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또한 제게 더불어 주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로만하고 진심으로 맡기지 못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권고하시며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주시며, 순종하지 않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영아부 때에 열심히 말씀을 심고 기도하며 눈물로 심으세요. 졸업할 때 벌써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나와 그 잎사귀가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음을 깨달아 알아요.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걸으셨던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육으로 양육하여 주신 우리 쿨장 영아부 이명옥 전도사님, 매 주일 축복 기도해 주신 이신은 목사님, 부장 조경옥 권사님, 믿음1반 정혜정 선생님, 영아부 선생님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 스승의 날 -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큰 선물

조정숙 집사 / 영아부



둘째 아이 호중이를 영아부에서 떠나보내며 부모의 모습에서 교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의 부담감 천배, 만배, 그렇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에 7년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특출 나서, 본이 되어서, 총명하여서 서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부족한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모양새의 교사의 모습인 저에게 믿음 1반 부모님들이 이번 스승의 날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쁜 액자에 정성스럽게 담겨진 감사장입니다. 주시는 감사장에 받는 저의 손이 부끄럽고 어디 작은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몰래 받은 연애편지를 누가 볼 새라, 받아온 감사장을 우리 아이들 없는 방에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며 감격과 미안함에 눈물 적셨습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자의 모습이지만 교사로 세워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아부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나누게 하셨고, 복된 자리에 통로에 서있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받은 감사장에 새겨져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더욱 교사의 본분에 충성하라 라고 큰 소리로 울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신 믿음 1반 부모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 섬기는 자의 본이 되기를 소망하며

전경숙 집사 / 영아부



떠나온 내 조국 한국에는 가정의 달 오월의 한가운데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어린 이날과 어버이날이 함께 있는 가정의 달 오월에 스승의 날이 있음은 가정과 가족들만큼 선생님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록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 먼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과 학창시절을 고국에서 보낸 저는 새삼 몇몇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학창시절 스승의 날에는 교정에서 목청이 터져라 크게 부르던 스승의 날 노래가 기억납니다. 지내고보니 하늘같다는 부모님의 은혜와 맞먹는 것이 선생님의 은혜라는 노래였네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몇 십 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분들의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새록새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가르침을 주시던 선생님들의 자리도 살아갈수록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아가들 생애의 첫 선생님이로, 더구나 영혼의 구원을 책임지는 영아부 교사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깨달을 때 부족한 저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5월 19일 스승의 날 주일, 영아부 1부예배가 끝나고 교사기도회시간의 교사실에는 여느 때와 달리 테이블들이 다 치워진 자리에 큰 대야에는 물이 가득 채워진 채 놓여있고 옆에는 마른 수건들도 제법 많이 놓여있습니다. 모두들 할 말을 잊은 채... 경건한 마음과 송구스런 마음이 한데 어울린 채 쭈뼛쭈뼛 서로의 어깨 뒤로 숨어들 때... 이명옥 전도사님과 조경옥 부장권사님께서 물대야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선생님 한 선생님의 말을 닦아주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

로 동분서주하는 바른 발걸음이 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발걸음 되기를, 늘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 해주시며 가만가만 조심스레 우리의 발을 닦아주실 때...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왔습니다. 통곡하는 선생님도, 가만히 눈물을 닦아내는 선생님도 계셨지만 마음은 모두 한마음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종의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도사님을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그럴 수 없다며 거부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잃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하며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순간 저는 모든 염치, 송구스러운 마음, 미안함... 모두 던져버리고 전도사님과 권사님 앞에 엎드려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내게 맡겨진 영아부 가족들을 섬길 수 있다면... 전도사님처럼, 권사님처럼 스스로를 낮추어서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을 섬길 수 있다면... 아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뻗쳐올라가는 나의 교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발씻김을 받았습니다.



# Farewell to Youngaboo

David Shin / 영아부 Josajah's dad



I had the wonderful experience of singing a song with my four boys on May 5th for Youngaboo. This was a special occasion for us because it would be the last time that we would be doing this, since my youngest son will be graduating this year. We sang “Deep and Wide.” I played the guitar while my sons sang and did body worship.

I think the song was particularly fitting, because the love and grace that God has for us is truly deeper and wider than anything we can imagine, and my children experienced that love in Youngaboo throughout the years, starting from oldest son who is now 8. Watching my sons sing the song and presenting in front of everyone reminded me how blessed I was to have a place where they could grow up knowing God; His truths and love. The two oldest are now in the youth choir and sang at the “Jesus is My Superhero” concert, and it all started with the foundation that was laid down in Youngaboo.

God tells us in Proverbs 22:6, “Start children off on the way they should go, and even when they are old they will not turn from it.” (NIV). Our children are never too young to start building a solid foundation in God, and for our family that’s what Youngaboo was about. Although many things have changed during that time, what hasn’t changed is the constant “flowing fountain” of wisdom and love from Joy Lee JDSN and all the wonderful teachers. So many children and parents have been blessed through the years, and this song was the least we could do to show a little bit of our appreciation. A special thank you to teacher Jenny Whang for preparing our wonderful attire!

##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권희은 집사 / 영아부 정현 엄마



정현이가 영아부에 서 쑥쑥 자라는 동안 엄마라고 하면서 찬양한번 함께 해 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 정현이랑 아빠랑 같이 무슨 찬양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동영상을 보며 연습하면서 정말 즐거웠다.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울동을 모르는 땡땡이 엄마라서... 내겐 연습이 필요했다.

정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며 엄마를 가르쳤다.

같은 생각, 같은 이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건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딸과 함께 찬양하고 엄마와 아빠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딸에게 보여준다는 게 참 좋았다. 엄마로써 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걸 많이 후회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 정현아”

“하나님이 정현이를 사랑하신데 이렇게 함께 춤추시면서 “

“정현아 사랑해”

“언니도 오라 그래 정현아”

“아빠 사랑해”

하나님과 함께 춤추며 나는 우리의 대화가 한마음으로 행복하게 또 하나님을 춤추게 했을 것 같다.

## 2013년도 꿀 송이 성경 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오민정 사모 / 영아부 / 영아부 은이 엄마



먼저 퀴즈장로교회로 인도하시고 영아부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은이에게 좋은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꿀 송이 성경퀴즈대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아이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암송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늘 쉽게 되지 않는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아부 암송대회가 있어 “아 참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생각하며 결심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본을 먼저 보여야겠다는 결심으로 임했습니다. 막상 퀴즈대회라고하니 걱정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시편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용기를 가지고 입으로만 외우다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내 모습이 재미있었는지 따라다니면서... 찌니라... 여호와... 찬양할찌어다...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저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외웠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오고 머릿속은 온통 하얘지고 심장은 두근두근...

남편의 응원을 받으며 영아부로 향했습니다. 다른 엄마 아빠들의 모습에 웬지 모를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느껴지자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막상 한문제도 맞지 못하고 우리 반에게 도움도 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끝나버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암송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 하는 암송대회 얼떨떨하고 긴장했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이들에게도 “엄



| 성경퀴즈대회 |

마 상 타올께” 라고 한 약속을 지키길 바라며... 우리 영아부 엄마 아빠들 모두 모두 암송하시느냐고 수고하셨을 것 같은 생각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암송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아부가 있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암송하는 기간 동안에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 이니이다”(시편 143:8). 아멘.





#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김재형 전도사 / 유년부



이번에 새로 유년부를 담당하게 된 김재형 전도사입니다. 새로 유년부를 담당하게 되며, 유년부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귀엽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아 말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가르치기 이전에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너무 예쁘고 귀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린아이의 심령을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가능성입니다. 그것은 마치 식물의 씨앗과도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식물의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종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가진 계획들, 심기만하면 곧바로 뻗어날 생명이 숨 쉬고 있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그 당장이라도 뻗어 나올 것 같은 씨앗과 같은 영혼들을 보는 것은 부모님계도, 그리고 누구에게나 분명히 기쁨인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연약한 면들 부족한 면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아이들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이들 생각해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더욱 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유년부가 되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영경 집사 / 유아부



## 너를 처음 만났을때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죠  
엄마랑 헤어지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한 듯 했죠  
그러던 네가 엄마와 헤어져도 네 얼굴은 해님이죠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찬양은 선생님의 몫이었죠  
육동도 찬양도 안하며 네 얼굴은 무표정이었죠  
일어서서 찬양하는 건 끊도 못 꾸었죠

그러던 네가 음악이 나오면 일어서서 뛰고  
앞으로 나오고 얼마나 온 몸과 엉덩이를 흔들는지  
네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네 입술은 큰소리로 찬양하느라 바쁜 리코리가 되었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애교와 장난도 네 마음을 끌지 못했죠  
그러던 네가 손도 잡아주고 껴안아도 주며  
애교로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너는 눈웃음과 미소를 마구 낚리는 애교덩어리가 되었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시다

그러던 네가 과연 인정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했지만  
이제는 큰 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성경인정을 잘 받으는지  
손까지 들면서 서한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말썽 *lover*가 되었답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전도사님의 질문에 무안할 정도로 무반응이었죠  
겨우 선생님이 대담해서 그 순간을 모면했지만  
이제는 네가 대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꺾쩍 늘었지요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서한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서한 각자의 말만 하다가 헤어졌죠  
그러던 네가 대화가 되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재미있게 얘기를 잘 하는지 수다스러운 *story teller*가 되었답니다

이랬던 네가 졸업을 합니다  
사랑스럽고 귀엽고  
양증맞은 네가 컸다고 졸업을 합니다  
짧은 1년이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안겨준 네게 감사하며  
아프지만 더 좋은 만남을 위해 너를 떠나보냅니다

에스더같이 믿음을 지키며  
다윗같이 복의에 용감하며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이삭처럼 순종의 자녀가 되며  
다니엘처럼 무시한 기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꼬마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조지빈 집사/ 유아부 태민 엄마



살롬!

제 이름은 김지빈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긴 후로는 제 이름이 불리어지는 때가 거의 없고 누구누구의 엄마로만 불려져 제 이름을 말하기가 무척 낯설고 쑥스럽습니다. Samuel, David 의 엄마, 김지빈입니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네요. 먼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런 간증 문을 준비하면서 제 신앙을 재정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같이 받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간증 문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그 짧은 순간 주마등처럼 저의 삶이 떠올랐고 제 머릿속이 너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요즘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먼저 불신앙의 대답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간 있었던 사건사고와 현재 진행 중인 문제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만 가득 찼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마치 예상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럼 제가 간증 할 것의 방향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하시며 시작하셨던 말씀..., 잠깐 이였지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 갑자기 얼굴이 뜨뜻해지며 “아, 그렇구나. 내가 그것을 또 잊었었구나. 매일 잘난 척하며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만을 과시하며 사는 나, 그런 내가 불과 얼마 전 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시기에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다싶게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후로 학

창시절에 찬양으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원에서 몰래 도망 나와 매주 한남대학교에서 여는 목요찬양을 다니며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했고 찬양단을 이끄는 전도사님과 그 옆에서 찬양을 하시던 제 눈엔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 찬양하는 천사처럼 보인 그 자매님을 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처럼 찬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 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 1때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 후 저의 소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고 음대에 들어가서 성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솔리스트로, 찬양 팀의 head singer로, 때론 반주로 봉사하며 늘 넘치는 은혜로 감사하며 때론 넘어지고 다운되어도 찬양으로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로는 예배를 드려도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찬양을 할 수 없었고, 더 이상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잘 양육하라고 주신 시간표다, 몇 년 만 지나면 다시 다 할 수 있으니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위로가 되긴 했지만 영적으로 갈급해오는 그 갈급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고 나중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나약해 졌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며, 거기서 오는 실망과 좌절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다 바로 일 년전, 둘째 아들 데이빗을 유아부로 보내는 첫 주일, 저는 너무나도 기대하며 기대했던 날이었기에 다른 부모님들은 애가 적응될 때까지 같이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전 첫 주부터 애가 울던지 말든지 상관치 않고 대예배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펄펄 흘렸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있을 뿐인데 너무나 사모했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 너무나 감사했고 이 얼마나 잊고 살았던 은혜인가 순간 다시 깨닫고 또 깨달으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찬양으로 은혜주신 그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주셨던, 잊고 살았던, 나의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보러 간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 그 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그 자리에 불러다 주셨음을..., 그 후로 제 삶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직은 성가대에서, 찬양 팀에서 봉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반드시 일어나는 시간표가 있을 것을....

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혼자 부르며 눈물 흘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따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최시몽 집사 / 유아부 용준 아빠



피터 김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든 축복에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신 적이 있

Pastor Peter Kim once said in his sermon, “With every blessing comes re-

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저의 3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며, 아주 귀중한 선물이며, 나의 기쁨이자, 또한 나의 염려와, 걱정과, 고혈압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3자녀는 여전히 나의 큰 축복이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부모로서의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잠언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께서서는 저와 제 남동생이 하나님을 알도록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주일마다 저희가 교회에 가고 또 성경공부에 참석하기 위해 남게 하시고, 수련회와 여름 캠프까지도 분명히 참석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한국어가 부족했고 설교와 모든 성경공부가 한국어라서 결국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까지도 아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저를 포기하지 않

sponsibility.” My first thought went to my three kids. They are my blessings from God, precious gifts, my joy and also my source of anxiety, worry, stress and high blood pressure. But yet, they are still my blessing and I wouldn't trade them for anything in this world. So then, what is my responsibility as a parent? Proverbs 22:6 says,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Obviously, it is telling us to train our children in the ways of the Lord. But how do we do that?

When I was a child, my parents did their best to raise my brother and I in a manner where we would come to know the Lord. They made sure my brother and I went to church every Sunday, made us stay for Bible Study classes, and even signed us up for the youth group retreats and summer camps. But I can attest to one thing - during those years (from kindergarten to senior high), I didn't really learn much or understand who God was, mostly because my Korean was so poor that I didn't understand what the sermons

았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쓰도록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전 정말 싫었습니다. 싫었다는 표현이 좀 심하지만 전 그때 정말 그 시간들이 싫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렸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요. 한국어로 배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생명과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까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구원과 회개와 은혜를 생각할까요? 아마 토마스 기차나 도라의 모험이나, 아이패드만큼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한 학기 정도 나가지 않았지만, 제 부모님, 특히 제 어머니는 그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스티븐 엄 목사님께서 영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등부때 부터 엄 목사님을 알았기에, 저에게 그리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설교와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

were about or what was going on in Bible study since everything was in Korean. I even grew up hating going to church on Sundays. But my parents never gave up on me.

They implemented family worship time at home, where we would read and write scripture every day. Oh, how I hated those days. I know hate is a harsh word, but back then, I really did hate those moments.

Did I really know who God was at an early age in my life? Probably not. Not to say it was because of language barriers that I didn't understand who God was, I think I just wasn't ready to accept Him.

How much does a child really understand about God and life and salvation? How often does a child think about salvation, repentance and grace? Probably not as much as Thomas the Train, Dora the Explorer, and where the iPad is. It wasn't until I was in college that I really started to understand who God was and is. I had stopped coming to church for about a semester, and yet again, my parents (especially my mom) didn't give up on



되니 한번이라도 참석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말 그대로 제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대학 시절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서적으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부모님과 영어예배를 통해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제 믿음은 자라기 시작하고 전에 가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모두들 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전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믿음이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만약 당신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다면 멈추지 말고 통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현재 아는 것과 지금 겪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가 겪었던 것과 같은 것을 겪거나 아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혼자서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 보호해 줄 수

me. She had told me about the English Ministry the church had started with Pastor Stephen Um.

I remembered Pastor Um from Senior High, so he was somewhat familiar to me. She asked if I would give it a try since the sermons and everything would be done in English. I did, and I thank God for that. Coming back to church and attending QPEM literally saved my life. High school and college were some of the most difficult times in my life where I struggled academically, spiritually, emotionally and in my relationships, especially with my parents. But God brought me back to Him and used my parents and QPEM to do so.

My faith began to grow and I developed that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at I never had before. I still go through struggles and difficult times as I'm sure we all do, but now I know that my God is with me and my faith keeps me pointed in the right direction. Someone once said, "If you're going through hell, don't stop."

Knowing what I know now and what I've been through, I would not want

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저에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때론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 혹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이 어려서 배웠던 크리스천의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크리스천의 삶의 롤 모델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삶에서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아니 완벽과는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끔 제 아내가 제가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애들에게 화가 나면 애들에게 화는 빨리 내고, 사랑은 천천히

my children to experience the same things or go through those dark times alone. But I can't always be there for them to shield and to protect them, and I'm sure they will face difficulties and trials that I can't even imagine.

So what can I do for them? Proverbs 22:6 tells me to train my child in the ways of the Lord. Yes, sometimes our children will stray away, but just like the prodigal son who strayed away from his father's love and later came back home when he repented, if our children are taught the way of the Lord, even though they may stray away for a time, in God's own time, they will come back to living the Christian principles that they were taught.

Our children may not understand everything we say or teach them, but it is important that we act like role models of Christian living so that they may know how it's applied to in their own lives.

I know I am not perfect - far from it! (And my wife can attest to this in the way I 'instruct' my children sometimes.) When I get upset at my children and I become quick to anger and

할 때, 적어도 나의 잘못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화가 날 때, 아주 볼멘 목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건 바로 저에게서 부터 배운 것입니다. 저는 벌써 아이 모습 속에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저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는데, 비록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고해서 제가 부모로서 방관하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돌보도록 맡겨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아이들이 따를 수 있는 본보기로서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제가 가정예배를 통해 가족을 이끌어 가

slow to love, I pray that I can at least teach them about repentance and forgiveness when I realize my wrong doings and actions.

When you see my son get angry and speaking in a harsh tone, he gets that from me. I already see it in him and it breaks my heart for my flaws become evident through my children. But faith teaches me one thing - even though I am not perfect, God is and in God's own time, He will make himself known to my children. I can't give them salvation - that can only come from God. But that doesn't mean I should relax as a parent and let God take care of my children. We still have a responsibility to train our children and serve as examples for our children to follow. Just as we are called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we should also minister to our children as well.

I don't think I can lead my family through family worship, not at this time, but I can at least guide them in what church is and who God is and why we go and slowly and patiently plant the seed of faith in their lives.

I pray that God will use my wife and I

는 것이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왜 교회에 가야하며, 또 아이들의 생활 속에 믿음의 씨를 천천히, 인내하며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에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제가 꼭 이루기를 희망하는 한 가지는 바로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to get the field ready so that our children will be ready to accept Christ into their lives. Above all things that we do to make our children happy and successful in every stage of their lives, the one thing I would hope to achieve is to grow their faith.

차진희 집사/ 유아부 혜주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차혜주 엄마 차진희입니다. 저희 가족은 혜주가 태어나서 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기에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

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유아원/유치원 다닐 때 사우디로 오랜 출장을 가셨어요. 그때도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빠와 같이, 아빠가 사우디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녹음테이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테이프 안에는 아빠의 음성편지/일기도 있고,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저희와 같이 드리는 것처럼 해서 녹음해서 보내주셨어요. 아시죠? 아이들이 좋아 하면 “엄마 또해봐, 또 해줘, 또 틀어봐” 그런 것처럼, 저도 그 테이프를 반복해서 매일같이 여러 번 들었고, 엄마와 제동생과 같이 그 테이프를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아빠가 제일 좋아 하시던 찬송이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였어요, 그때 뜻은 몰라도 정말 줄줄이 외어 불렀던 게 기억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찬양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아마도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불려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가정예배가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매일같이 밤 10시면 다 모여서 드리던 예배, 어느 땐 정말로 드리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빠가 매일 준비하신 성경 구절과 말씀 안에 저희에게 언제나 교훈을 주셨던 거 같습니다. 저는 정말 따로 혼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안에 “우리 진회가 오늘은 이리이러했는데 용서해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아마도 이런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심을 길러주고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 인도해주고 싶어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자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예배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해주, 승주,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막 돌아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곧잘 드립니다. 피곤할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자고 싶은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바이블 안해?” 그렇게 물으면 “아니 해야지” 하고 어린이 성경을 펼치게 됩니다. 비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로 인해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 고등부에서

임재희 / 고등부 학생



A few years ago, when I walked into Senior High for the first time, it felt very awkward and I couldn't get used to the fact that I had to take service here every Sunday. It was weird because I was waiting to graduate from Junior High so I can finally rejoin my older friends in Senior High. But everything felt new and my mind just went blank. My first Senior High Sunday service was very interesting and one of those moments I would never forget. Sitting in the chapel and listening to the sermon was very new to me. I couldn't get used to the seat and somehow I felt very uncomfortable. I felt as though I was a new student in a new high school and everyone was looking at me and talking about me. But the Senior High members were very welcoming and I became friends with most of them very quickly. I already had friends, but it seemed as though I got even closer to them after I became a part of the Senior High ministry.

I have been going to KAPCQ for 18 years, and during those 18 years I had a lot of ups and downs. I was the type of person who would go to church for my friends or because my parents forced me too. I never went to church to praise God or to become a faithful Christian. During worship, I would talk to my friends or just hang outside until the praise was over. I would sometimes be on my phone and not pay attention to the sermon. I was always waiting for service to end so I could go and freely talk to my friends. Occasionally I would go to Bible Study, but other times I would just go home or go eat. I never took anything seriously. But it all

changed during the first summer retreat where the Junior and Senior High came together as one joint ministry. It was during the prayer time of the second night where I encountered God. I realized that church wasn't about your friends, but about praising God and giving your all to Him. I am the type that doesn't pray out loud because it's embarrassing, but that night, I didn't care who heard me pray as long as God was listening to me. That was one of the happiest moments I ever had in my life. After that retreat, I came to church, not because my parents forced me, but because I wanted to serve God.

Then came my last year in Senior High. I hated it in the beginning; all my friends left to go to college and I was the only one left. I didn't have many friends my age and I hated going to church again. But although I didn't want to be a part of Senior High anymore, I wanted to encounter God again, so I decided to serve by being a leader. It was pretty hard at first because I was spiritually dry and had little faith in God, but I prayed and prayed and eventually I loved praising God more than anything. I loved singing during praise, listening to sermons, and most importantly, I just loved coming to church because I got to spend time with God and speak to Him face-to-face. My experience in Senior High was one of a kind. It was such a blessing to serve here, and I definitely don't regret being a part of this ministry because this was where I could do what I love to do everyday -- serving God and being a faithful Christian.

### 시선을 맞추면 8배 매력적이다

스코틀랜드 에버딘대학의 연구팀은 남녀의 얼굴 사진들을 460명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매력 수준을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똑바로 쳐다보며 미소 짓는 얼굴이 옆을 바라보는 얼굴보다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이성의 사진을 평가할 때 두드러져 매력도가 여덟 배까지 높았다.

## 청년부 X-File

김근희 집사 / 청년 3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친한 친구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친구들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재수생으로 청년부를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을 특별한 만남을 예비해두셨습니다. 저는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 새롭게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받은 교육 중 가장 우선시 했던 것이, 기도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외우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큰 의미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순종하며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의 삶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계획과 야망이 많았던 저에게, 갑자기 전공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 대학진학의 어려움, 편입... 여기저기에서 불합격 소식 또는 저의 소망과는 관계 없는 소식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도 교육 받은 대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암송했고, 점점 더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어려움을 만날 때면 교회에서 기도하게 되었고, 강대상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저를 이끄셨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하시고, 대학교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말씀의 그 위력을 체험하게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계획과 야망이 많았던 저에게 인생길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하기 전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미리 엮드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품었던 계획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비교할 수 없이 멋있고 복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을,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승우 청년 / 청년 1부



Human desire shows no limit. Favorable job, high salary, good house, a luxurious car... It's infinite and beyond. Hi, I'm Frank from 청년부. My life lately has been all about choices and hardships. I'm in the process of declaring my major at my college and it seems like it is going nowhere. My major has to be declared before I end next semester or else I'll be in an unfortunate situation and because of my unclear wanting, I'm on my toes. Starting from this year, I made a promise with God to really live fullest to His desire and not

mine. As of my faith, it is growing and growing but it is creating a conflict within my thoughts linking God to majors.

My friends around me are exposed to the same environment that I am in. We take similar classes, sometimes even the same class, but our grade results vary from one another. Even if my friends and I were exposed to the same material to study, my friends always ended up with better grades than me. I see my friends who all seem to know what they want to do in the future and are declaring their majors, taking classes that will help them get closer to earning their degree complete with favorable grades. Not only are these friends of mine are doing well in school, they are also well off financially so that they own their own cars and things that are impossible for me. With all these facts of reality around me, I started doubting myself and feeling upset.

With all these unclear situations for my life, it made me think “Maybe God is not working in me...”. All the things I tried just seemed to be no good. However, I started seeing things differently this week. I started going to the leaders’ meeting for 청년부 since last month. One of the lessons that made me think was the phrase, “When we are weak, it is the biggest strength towards God.” Suddenly I realized that my facing problems of school, financial status, and other personal conflicts were all meant to be there. While all my other friends were living their lives and heading towards their major with successful grades, God had something bigger planned for me.

Through this hardship, I was able to depend on God and give myself all the reasons to why I need to live for God. In the past, when I used to seriously think about what I wanted to major in, it all started from my greed of gaining money. What I realized was that

if you try to reach for your desire overall, it's never going to work out. Instead of, "What do I want to do with my life?", it has to be, "What does God want me to do with my life?". God gave each and every one of his children a special talent and with that talent, we must serve Him.

God's bigger plan was to start me off through this process together instead of doing it on my own and to fail later on. I was really thankful. People could strive on their own and become successful, but what I realized is that God could take that away anytime he wants to. That's why I felt that nothing else mattered - you just have to link EVERYTHING you do with God. Without Him. We are nothing.



이애령 집사 / 청년 2부



###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는 청년 2부 이애령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수술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지 벌써 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를 이끌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올수가 없었고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려고 비자를 넣어봤지만 3번이나 거

절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의 머리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불만불평도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옷자락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세월을 기도로 지내면서 주의 길을 갈려고 많은 것을 포기했고 또한 친구들과 친척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삶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시달림 속에서 결국 신학교를 포기하려고 마지막으로 미국에 비자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포기 상태라 희망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랐고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비자가 통과돼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친척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친구 한명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저는 하나님은 온데 간데 사라졌고 앞만 캄캄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었고 제가 할 수 있을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도 퀸즈장로교회에 와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신학교도 다니고 집도 찾고 일자리도 찾았습니다. 그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신분을 하는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가고 이 영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마침 겨울 청년수련회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얼마 후에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인터뷰에서 통과했고 일 년 후인 금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때론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주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끝으로 이 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2013 IN - CITY 캠퍼스 심방 현장 스케치



오 건 목사  
교육부 담당

우리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하는 교회로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영향력 있는 다음세대를 세우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여 차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이다. 이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위해 진행되는 사역의 한 부분인 캠퍼스 심방(Campus Visitation)이 매년 두 차례 진행된다. 봄에는 In-city 캠퍼스 중심의 심방과 가을에는 Out-City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교인들의 자녀를 심방으로 섬기는 사역이 진행된다.

5월7일 부터 21까지 25개의 대학 캠퍼스를 담임목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총73명의 교인 자녀들을 심방해 주셨다. 기말고사(Final Exam)기간을 두고 지쳐있는 자녀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새 힘과 축복의 기도로 지혜와 비전의 지경이 넓혀 질 수 있도록 박규성 담임목사님께서 는 아버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로 축복해 주셨다. 이후에 교인자녀들이 평소에는 가보기 힘든 restaurant에서 최고의 음식과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본 교회 교육부에서 양육되어져 대학 캠퍼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소망안에서 영향력 있는 부흥의 세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로 이 세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답사

이양미 전도사/ 유치부 담당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6년 동안 공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세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26년 전 동부개혁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시고 바른 칼빈주의 보수개혁 신학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우리 신학교가 오늘이 있기까지 섬기어 오신 학장 장영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흠 많고 부끄러운 것 많았던 저희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 된 자로 양육하기 위하여 목회하시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타협도 마다하지 않고 개혁과 변화를 무분별 하게 쫓아가는 이 시대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배학 교수님, 화합이라는 명목아래 종교 다원주의가 우리를 향해 나아 올 때 진정한 화합은 혼합이 아닌 연합임을 밝히 깨우쳐 주셨던 조직신학 교수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 하셨던 신조학 교수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만이 위대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고 열변을 토하셨던 사도행전 교수님, 선교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익히고 배워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고 힘주어 말씀하신 선교학 교수님, 교회를 계속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확고한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한 사명감을 주셨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담아 주시기 위해 매 시험 때마다

다 “자세히 기록 하시오”를 유난히 강조 하셨던 지혜문학 교수님, 하루 3시간 이상 공부 하지 않으면 이 과목은 따라 갈 수 없다고 첫 시간부터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셨지만 매 시간 저녁을 챙겨주시고 최선을 다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성령님을 의지하라 시면서 사랑과 기도로 격려해 주셨던 헬라이어 교수님, 일점일획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달케 하기위해 7단계 말씀준비 과정과 3대지 작성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 하시면서도 권세 있는 말씀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본문 50번 이상을 읽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 하셨던 설교학 교수님, 점 하나에 웃고 울어야 했던 히브리 고난의 언덕 위에서 포기하고 좌절 할 때마다 늘 인자한 모습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던 히브리어 교수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 교수님들의 가르치심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 칠 수 없는 말씀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학장님, 학감님 그리고 교수님들께 다시 한 번 저희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 학기마다 좋은 학우들과 경쟁자가 아닌 신실한 동역자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던 시간들, 이세대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끌어안고 철야기도 했던 순간들, 좋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잊지 못 할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가을학기에 있는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찬양축제는 자칫 빡빡한 수업 스케줄로 소홀해 지기 쉬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우리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좋은 학교와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들과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니 못내 아쉽지만 졸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교정을 떠나 각자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동안 교수님들께 머리로 배운 지성과 영성, 눈으로 본 교수님들의 섬김과 실천의 삶 들을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고 손과 발로 실천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저희 신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격려 해 주신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기도로 묵묵히 외조해 주었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영광을 올려 드리며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드립니다.



## 새가족 간증

최정근 청년 / 106기 새가족 수료 간증자 /

3교구 청년 3부



저는 청년 3부 최정근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지만 직장으로 인해 타주로 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채 세상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기다리셨다가 친구의 권유로 다시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7주간 새가족학교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며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가족부에서 봉사하시는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했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로 기적처럼 매주 6일 동안 새벽기도와, 수요일예배, 금요일기도회, 주일예배를 참석하므로 세상에서와 다른 저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런 안정된 마음이 참 오랜만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점점 더 많이 알고 싶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저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믿고 주님의 말씀

| 새가족 간증 |

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 성경책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들과 여러 전도사님들과 맛있는 식사로 정성껏 대접해 주신 여전도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청년 / 06기 새가족 수료 간증자 /  
2교구 청년1부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1월 퀸즈장로교회에 온 2교구 청년1부 김미연입니다.  
먼저 퀸즈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새가족 공부를 은혜가운데 마치고 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국에서 지난 8월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다음 해 MBA진학을 목적으로 TOEFL과 GMAT준비 중입니다. 퀸즈장로교회 와서 새가족공부를 하는 동안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께 교회와 미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았습니.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질 정도로 엄마의 음식이 그리운 유학생들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배려,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하고 맛있었어요. 특별히 유학생들을 하면서 힘들지않냐고 챙겨주시며 일하는 곳까지 찾아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주신 전도사님의 모습에서 더욱 사랑을 느꼈습니다. 미국생활과 교회생활을 시작하는 저에게 새가족공부를 통해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담임목사님과 장미은 사모님의 말씀에 너무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부족했던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새가족공부를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통해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가족공부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영생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중요성과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와 그 부활의 결과에 대해 공부하면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도 믿어야만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는 사망과 고통 속의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그 죽음도 의미가 없고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또 섬기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청년부 안에서는 지난 3월에 있었던 뮤지컬을 같이 준비했는데 밤낮으로 열심히 불평불만하지 않고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뮤지컬 공연을 코앞으로 3, 4일 앞뒀을 때 새벽까지 교회에 남아 연습하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의 저는 모든 섬김을 통해 받은 감동과 열정을 가지고 청년부 찬양팀과 4부예배 안내로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섬기기를 원하고 권장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좋은 교회에 와서 은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60년 전으로 돌아가 소설 ‘소나기’의 주인공이 되다

최원일 집사



차창밖으로 보이는 베어마운틴 산등성리로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그 산길을 따라 달리는 버스 안의 표정은 하얀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었다. 두 대의 대형 코치버스에서 차례로 내려서 행사가 치러질 정자 (Pavilion)까지 이어진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주일 학교 소풍이 주는 풋풋한 설레임 그대로였다. 아동바둥 복잡한 퀴즈의 일상을 떠나 숨이 멎을것 같이 시원한 초여름 신록의 품에 안긴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것 같았다. 날씨는 뒷전이였다. 화창한 날씨였다면 또 그대로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이 잔뜩 찌뿌린 날씨를 탓하는 이들을 볼수 없었다.

호수가 언덕위에 작은 원형경기장 처럼 자리잡은 파빌리온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1백명이 넘는 우리의 어르신들...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했다. 귀한 교회를 주심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향한 감사의 찬송이 베어마운틴 정상에서 솟아났다. 이는 곧 메아리가 되어 수많은 산 줄기를 타고 산지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원로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다음, 불을 지피고 음식을 차리기 시작하자,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소나기였다.

산속에 내리는 초여름 소나기... 곳곳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리듬을 맞추어 나뭇잎으로, 파빌리온 지붕위로, 흙으로, 잔디밭으로, 그리고 언덕 아래 호수의 수면위로 떨어지는 그 여름 소나기 소리는 사람이 흥내 낼수 없는 소리였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퀴즈의 시니어 성도들을 위해 친히 지휘자가 되셔서 위대한 자연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하고 계셨다. “수고 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40여년이 흐르기가



지, 무릎과 눈물로 앞드리며 온갖 헌신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키워오신 믿음의 시니어들을 위로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들려졌다.

모락모락 올라오는 불고기 바베큐 연기가 운치 있게 내리는 소나기 사이를 채우는 동안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맛난 음식들은 지붕밑에 마련된 피크닉 테이블들을 준비하게 채워 나갔다. 소나기 소리를 들으며 산속에서 즐기는 불고기 바베큐라... 그 바베큐 그릴위에서 갓 볶아낸 김치까지...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다는 솔로몬왕이 정녕 이 맛을 알수 있을까?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산속의 소나기는 점심후 이어진 여흥시간에도 계속 되었다. 남녀 각 전도회들의 정성으로 마련된 수백가지 선물들과 함께 진행된 게임은 이들을 '70세 이상의 효도관광객'이 아니라 여름 소풍 나온 주일학교 학생들이 처럼 만들었다. 게임에서 이기려고 억척을 쓰며 손뼉을 치고 신나게 웃어대는 모습... 타임머신을 타고 60년 세월을 거슬러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이들과 처럼 보였다.

호숫가에 세워진 정자위에서 소나기를 피하며 놀이에 여념이 없는 이들의 모습은 개울가에서 조약돌로 물장난을 하다 수숫단 원두막에서 함께 비를 피하던 '윤초시네 증손녀'와 그 곁의 '소년'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를 통해 그려냈던 예쁜 수채화와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후대에 물려줄 믿음의 큰 유산을 쌓되, 그날 베어마운틴 호숫가에서 소나기와 함께 회고했던 젊은 미소와 추억을 함께 품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도한다.





## 남전도회 낚시 친목회

손충현 집사 / 바울전도회



6월 23일 남전도회주최 아래 롱아일랜드 몬탁 으로 낚시 친목회 가졌습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있는 남전도회 낚시대회로 젊은 집사님으로 부터 장로님까지 40여명 참석하였고 또한 바다낚시를 하고 싶으신 것이 평생소원 이셨던 안재현 목사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모여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평소 아침잠이 많아서 토요일충동원 새벽 기도에 잘 나오시지 않은 집사님들께서도 거룩한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인균 집사님이 미리 준비하신 사랑에 귀밀테(?)를 붙이고 뱃멀미약도 먹고 단단히 준비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아침 7시 30분 뱃을 타고 몬탁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 차안에서 찬양도 부르고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 대화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LIE 마지막 exit 까지 가서 다시 local 길로 한 시간 정도 동쪽으로 가니 파랑고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보이고 출렁이는 파도가 보이자 저희 일행은 점점 마음이 설레기 시작 하였습니다. 9시 30분쯤 몬탁 부둣가에 도착하여 오직 광어를 많이 잡겠다는 일념 하에 모두가 알아서 각자자리를 정하고 배를 타고 한 시간 넘게 파도를 헤치고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는 첫 낚시줄을 바다에 드리우던 그 순간 모두가 설렘으로 얼굴에 긴장감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시한지 한두 시간이 지났는데 그 넓은 바다에 광어가 다 어디 갔는지, 점심 먹고 낮잠을 자러 갔는지, 40명이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크기가 미달된 광어만 20마리 낚질 소득이 별로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집사님들은 아예 낚시를 포기

| 남전도회 |

하시고 배안에 잡아놓은 광어에만 침을 삼키시고 눈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바다낚시 하시는 것이 소원이시던 안목사님도 뱃멀미에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전도회 낚시대회를 주관했던 강태공 송동을 집사님께서는 고기 못 잡은 집사님으로 부터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내일부터 숨어 다녀야겠다고 하시고 여러모로 배안에서 위기감? 이 돌때 하나님께서 저희 남전도회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처음으로 큰 광어를 잡게 하였고 그 후에 베테랑 송집사님을 비롯한 강태공 집사님들의 활약으로 배안에서 40명이 배불리 광어회를 먹고도 남을 만큼 광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낚시가 끝나고 육지에서 여러 가지 시상식과 기념사진을 찍고 무사히 사고 없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남전도회 주최로 열린 낚시대회로 인해 하나님이지으신 자연을 만끽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넓은 바다와 신선하고 짜조름한 바다냄새가 바쁘게 사는 뉴욕 남자 집사님들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 보냈고 광어회 웰빙 음식으로 보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번행사를 계획하시고 먼 길에 교회 배를 운전하신 집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많은 집사님들께서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을 맛보며 친교와 친목을 다지는 귀한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배와 찬양팀 수련회를 다녀와서

오인수 전도사 / 경배와 찬양팀



## 1. 'Wake Up'

경배와 찬양팀 수련회를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수련회를 기획하시고 지도해주신 담임 목사님과 오건 목사님, 홍승룡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흥을 통한 킨즈장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3년째입니다”

‘경배와 찬양팀 수련회를 안간지 얼마나 되었지요?’ 라는 저의 질문에 경배와 찬양팀 총무, 심인보 집사님께서 하신 대답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가졌던 수련회가 3년째 없었기에, 팀원들의 수련회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리더들과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획하고 교회에 건의하고 나아갈 때, 3년을 기다린 수련회가 마치 3주 만에 현실화 되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엡 5:14)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소서 5장 1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며 “Wake Up”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39명의 경배와 찬양팀은 7월 18일에서 19일까지의 리더 수련회, 19일부터

20일 까지의 멤버 수련회를 하면서 두 번의 집회와 세 번의 세미나, 세 번의공동체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 2. 선택 받은 자가 구해야할 거룩과 하나님 나라

리더가 영적으로 먼저 일어서고 주 안에서 강건해야 팀원들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모인 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우리들의 Identity를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특별히 리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리더들이 전심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은 ‘거룩’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향한 우리의 진실 된 섬김 들을 통해서 죄악 뿐인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성도님들과 세상에 전파될 수 있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음악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미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과 역사 속의 예배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고, 어떻게 형식이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성경에서 제사와 예배 때 음악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살펴보았고, 사도 시대 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역사 속에서 예배 음악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배웠습니다. 성경 속의 예배 음악에 대한 아름다운 원형을 보면서 풍성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고, 역사 속에서의 예배 음악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보여주는 그 풍성한 예배를 어떻게 역사 속에서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뉴욕, 이민사회, 미주, 한국 교회들의 예배 영상들을 보면서 지난 20년간의 예배 음악의 흐름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어떤 예배를 꿈꾸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뉴욕 이민교회의 예배에 부어주실 하나님께 특별한 비전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3. ‘일어나 빛을 발하라’

금요일 낮에 선발대가 도착하고, ‘Spontaneous Song’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노래’와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 종류의 예배들을 통해

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도 침묵으로도 금식으로도 다양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듯이,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으로도 찬송가로도 그리고 새노래와 신령한 노래들로도 다양하게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배운 대로 연습하고 찬양하면서 다양한 표현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찬양 속이 거하시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랍고도 신실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금요일 밤에 후발대가 도착하고 식탁의 교제와 공동체 나눔 시간을 가지며 서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혜연 자매와 김도완 형제의 인도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드렸고, 기도하였습니다.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을 통한 구원이란 복을 받은 우리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New Life,” “Walk in Love”라는 거룩과 사랑의 삶이 드러나는 예배와 예배 자가 진짜 예배이고 진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5장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회개하였고, 목표를 분명히 하였고, 진정한 소망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빛으로 부름 받은 우리가 만드시 주를 위해 ‘깨어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호소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 4. 사랑의 섬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세족식’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도자가 총무 집사님의 발을 씻기고,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 리더들의 발을 씻겨주고, 리더들의 섬김과 기도와 함께 모든 멤버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물로 발을 씻길 때, 눈물로도 함께 씻겨주고 간절한 기도로도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방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과 섬김, 무릎 꿇음과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친히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배와 찬양팀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위로하고 싶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족식 후에 밤이 많이 늦었지만, 멤버들은 리더들의 열심히 준비한 세미나를 진지하게 듣고 배웠습니다. 악기팀 리더 함상윤 형제의 ‘찬양팀이 영적인 전쟁의 선

## | 경배와 찬양 |

봉이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겠다고 공감하였고, 보컬팀 리더 이혜연 자매의 찬양팀의 '자격, 연습, 방해, 균형'이라는 나눔을 통해 우리들을 현 모습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디워십팀의 발표를 통해 우리 교회 찬양팀의 강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 5. 감사 또 감사

이번 경배와 찬양팀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멤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Wake Up, 일어나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을 듣게 하심에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연약한 저희들에게 '찬양팀 수련회'라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신 교회와 여러 사랑의 섬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팀이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따라 교회와 예배를 더 잘 섬기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 나의 또 하나의 삶의 간증이 되신 하나님

심경선 집사 / 영아부 교사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믿어 지지 않는...

2013년7월13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프닝 리셉션 날입니다. 이날은 제 결혼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2013년도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쉽 없이 달려온 한해입니다. 전 아이의 엄마이기도하고 교회에서는 영아부에서 섬기며 교회 PTA와 학교 PTA에서도 열심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사랑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삶의 간증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전 순수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순수 미술은 그림, 조각, 판화 등을 다 다루는 말 그대로 산업적인 미술이 아닌 미술을 말합니다.

둘째 아이 혜성이를 낳기 전 까지만 해도 전시회도 하고 열심히 제 분야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아이들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고 얼마 후 산후 갑상선이라는 병도 앓고 몇 개월 동안 침대 생활을 해야 했던 저로써는 전시회는 물론이고 아이들과 하루하루 제 몸 하나 추수리기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매일 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젠가 될지 모를 그날을 위해 가끔은 내가 언제 부터 언제 까지 기도해야 할지 모를 이 기도를 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치고 힘들 때 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이명옥전도사님의 성경공부 말씀으로 제게 다가와 주신 성령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란 없으시며 너무나도 섬세하시고 자세히 세밀하게 터치하시는 하나님, 감격과 감동일 뿐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준비

해 주시고, 어쩌면 이럴 수가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마다 숨이 막히고 감동에 감격에 가슴 떨리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

오 건 목사님께서 전시회장에서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열 어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전 또 다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 예비하시는 하나님

김은경 집사

올 2월에 나는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맨하탄 첼시에서... 미술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첼시 갤러리에서의 개인 전시회, 게다가 초대전. 그전 까지 나의 경력은 지방 몇 군데 공모전에 뽑혀 전시한 경력이 전부였던지라, 전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도 갤러리에 그림을 걸기 전까지 내가 개인전을 첼시에서 한다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달 전시회까지 “여자 선(line)으로 말하다”를 기획하고, 참여하게 된것도 오프닝 파티가 끝난후에야 실감할수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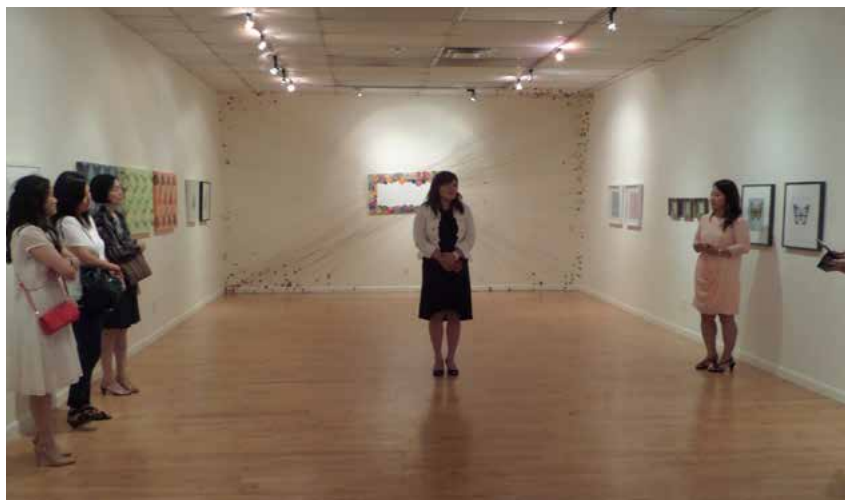
하루는 어떤 작가가 내게 “참 수단이 좋으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갤러리

관계자들을 좋은 수단으로 설득하여 전시회를 하게 되었다는 말이었지요.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그리 말했겠죠. 나는 말주변이 없는사람이라 누굴 설득하여 일을 도모 한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입 보다 손으로, 붓 으로 말하는데 재주가 있는데, 좀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차!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어 일을 만드신 그분을 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내가 많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습니다. 나의 주님. 내게 기적 같은 일들을 모두 준비하시고 빈틈 없이 펼치시는 나의 하나님을 어리석은 나는 매일 잊고 삽니다. 그제서야 또 한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섭게 깨달은 나를 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늘 감사이고 감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큰 감사와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전시회를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해달라고 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용기내어서 내게 수단 좋다고 말하신 작가분께 나를 도우시고 내 모든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당당히 말하려 합니다.

미술 그룹 전시회를 마치고.



## 중등부 담당 정도영 목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정도영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로써 중등부와 교회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현재는 결혼 한지 4년 된 아내(김미경)와 3살 된 딸(혜인)과 함께 후레쉬메도우(Fresh Meadows)에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퀸즈장로교회 당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1992년도 14세 때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와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착하여서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브루클린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민 온 1.5세로써 1세대 아니고 2세대 아닌 스스로를 어설픈 자(?) 입니다.

브루클린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CUNY에서 회계학 공부를 하던 중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신학 대학을 들어가기 성서신학(B. A.)을 공부하고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 에서 목회학석사(M. Div)를 졸업 하였습니다. 학부 시절부터 뉴욕의 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시작 하여 8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많은 일을 이루셨고 귀한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시대 아이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다 진리에 대한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회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중, 고등부 사역자로서 느낀 점은 복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





조하며 복음을 가르칠 때, 회심을 경험하는 학생이 생기고,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아이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감격을 알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8년 동안 중,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프로그램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도 중요 하지만 철저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중,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의 교회학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2세 학생들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미국 땅에 살면서 언어, 환경, 문화와 가정에서 오는 실제적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1.5세 2세 청소년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느끼게 해 주는 일,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고, 함께 놀 때도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난 8년간 중,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주셨던 많은 열매와 체험을 쿼츠장로교회 중등부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장영춘 원로목사님께서 39년간 미국 한인교계와 미국교계에 많은 영향을 준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 받고 박규성 담임목사님의 목회 비전과 사역방향에 함께 발맞추어 온 교역자들과 제직들과 교우님들과 함께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맡은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겠습니다.

## 요셉 도서관 신간 안내

번호	제목	지은이	출판사	연도
1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열매	김홍진	성약	2004
2	스토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티그린	디모데	2013
3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존 오웬	생명의 말씀사	2011
4	한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김창대	IVP	2013
5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못할까	데이비드 고든	홍성사	2012
6	갈보리의 그림자	휴 마틴	지평서원	2012
7	구약의 위대한 기도	브루그만	성서유니언선교회	2012
8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	조이스 마이어	베다니 출판사	2012
9	지금은 성령 시대	한 홍	규장	2001
10	오직 예수	존 파이퍼	복 있는 사람	2012
11	고통 받는 삶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윌커슨	좋은 씨앗	2012
12	넥스트 처치	에디 깁스	교회서장연구소	2001
13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동원의	규장	2012
14	성경 이야기와 구원 드라마	윌리엄스	부흥과 개혁사	2012
15	팬인가, 제자인가	아이들 먼	두란노	2012
16	우리 시대의 6가지 이상	트레빈 왁스	부흥과 개혁사	2011
17	잊혀진 하나님	프란시스 첸	미션 월드	2012
18	블레싱	이동원	규장	2013
19	거짓신들의 전쟁	아이돌 먼	규장	2013
20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유기성	규장	2012
21	요한 계시록 1, 2	백금산	부흥과 개혁사	2010
22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 2	백금산	부흥과 개혁사	2010
23	이렇게 가르치라	윌터카이버로스	새물결 플러스	2009
24	그리스도인의 귀한 보물 만족	버로스	생명의 말씀사	2010

25	한국 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윤석준	부흥과 개혁사	2010
26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어령	홍성사	2012
27	철인	다니엘 김	규장	2013
28	성경과 5대 제국	조병호	통독원	2011
29	루터, 혼돈의 숲에서 길을 찾다	김용주	익투스	2012
30	조지 횃필드의 일기	조지 횃필드	지평서원	2002
31	거룩과 동행	에런 로스	디모데	2009
32	내 증인이 되리라	김홍진	성약	2005
33	선택의 기술	앤디 스탠리	요단 출판사	2012
34	삶과 목적과 의미	마이클 호튼	부흥과 개혁사	2011
35	보호하심	이찬수	규장	2012
36	여리는 능력시대	한 홍	규장	2012
37	큰 사람 작은 하나님	에드워드 웰치	개혁주의 신학사	2012
38	기독교 교리	마크 드리스콜	부흥과 개혁사	2012
39	십자가 사랑과 죽음	마크 드리스콜	부흥과 개혁사	2010
40	삶으로 증명하라	이찬수	규장	2013
41	더 있다	이태형	규장	2012
42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잔느 뉘용	생명의 말씀사	2009
43	하나님을 기뻐하라 (개정 증보판)	존 파이퍼	생명의 말씀사	2009
44	기독교 신앙과 포스트 모더니즘	밀라드 에릭슨	기독교 문서 선교	2012
45	개혁주의 예배론	마이클 호튼	부흥과 개혁사	2011
46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에드워드 웰쉬	기독교 문서 선교	2010
47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의 습관	앤디 스탠리	디모데	2010
48	존 비비어의 끈질김	존 비비어	두란노	2012
49	구속사 (조나단 에드워즈 전집 3)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과 개혁사	2011
50	성화란 무엇인가	퍼거슨	부흥과 개혁사	2010
51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규장	2012
52	결혼 신학	존 파이퍼	부흥과 개혁사	2010
53	떠남: 내 인생에 가장 담대한 순종	이용규	규장	2012
54	십자가 사랑과 죽음	마크 드리스콜	부흥과 개혁사	2010
55	전도 혁명, 선교 개혁	마크 드리스콜	부흥과 개혁사	2011

## 서평

### 지성과 영성의 만남, 이어령

『지성과 영성의 만남』은 양화진문화원의 주최로 2010년 4월 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과 이재철 목사의 대담을 엮은 책이다. ‘삶·가족’, ‘교육’, ‘사회’, ‘경제’, ‘정치’, ‘세계’, ‘문화’, ‘종교’라는 여덟 가지 주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소재로 삼았다. 신과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서부터 사회 각 영역의 이슈로 자리 잡은 문제들까지 우리들에게 눈물과 웃음을 전하는 위로와 조언들로 채워져 있다. 삶이란 무엇인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우리 사회의 기형적인 주택문제와 높은 자살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성장과 분배에 대한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성찰을 보여주고 있다.

### 오직 예수, 존 파이퍼

미니애폴리스 베들레헴 침례교회 담임목사 존 파이퍼의 『오직 예수』.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가 예수의 유일성과 복음전도의 시급성을 약화시키는 오늘날의 만인구원론, 영혼멸절론,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 등의 논쟁적 이슈를 포착하고 성경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책이다. 영원히 깨어 고통당하는 지옥이 존재하는지, 구원을 위해 죽음과 부활이 꼭 필요한지,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지 등 그리스도의 유일성 논쟁에 관한 존 파이퍼의 명쾌한 답변을 만나볼 수 있다. 점점 축소되고 다원화 되어가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를 알고 믿어야 할 필요를 일깨운다. 아울러 지옥에 관해 존 스토틀와 존 파이퍼가 논쟁한 편지의 일부를 수록하였다.

###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이동원 외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책이다. 지구촌교회의 원로목사인 이동원, 이랜드그룹의 박성수 회장 등 국제복음주의학생연합회 5인의 구술을 엮은 이 책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들은 죄인들과 고통 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님의 선심을 닦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주기 위해서는 기도와 큐티를 통해 스스로 먼저 변화된 신앙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 거짓 신들의 전쟁, 카일 아이들먼

『거짓 신들의 전쟁』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짓 우상들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다. 음식, 사랑, 오락, 게임 등 삶을 살면서 누구나 접하는 것들에서 안도하고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에 주목한다. 통찰력 있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허비하고 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며 우리 삶의 자리 잡고 있던 각자의 거짓 신들을 밝혀낸다.

### 스토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 크리스 티그린

『스토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는 어느 누구라도 스토리 텔러가 될 수 있도록 신구약 전권을 아우르는 52가지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제시한다. 스토리를 말로 전달하고 질문을 토의하며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소그룹 리더, 주일학교 교사,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기 원하는 부모,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개인에게 도움을 준다.



# Setting Our Minds on Things Above in Summer

(Thoughts on Colossians 3:1-2)

퍼온글 / 존 파이퍼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Colossians 3:1-2)

Every season is God's season. But summer has its special power.

Jesus Christ is refreshing, but flight from him into Christ-less leisure makes the soul parched. At first it may feel like freedom and fun to skimp on prayer, and neglect the Word. But then we pay: shallowness, powerlessness, vulnerability to sin, preoccupation with trifles, superficial relationships, and a frightening loss of interest in worship and the things of the Spirit.

Don't let summer make your soul shrivel. God made summer as a foretaste of heaven, not a substitute. If the mailman brings you a love letter from your fiancé, don't fall in love with the mailman. That's what summer is: God's messenger with a sun-soaked, tree-green, flower-blooming, lake-glistening letter of love to show us what he is planning for us in the age to come—"things which eye has not seen and ear has not heard, and which have not entered into the heart of man, God has prepared for those who love him" (1 Corinthians 2:9). Don't fall in love with the video preview, and find yourself unable to love the coming reality.

Jesus Christ is the refreshing center of summer. He is preeminent in all things (Colossians 1:18), including vacations and picnics and softball and long walks and cookouts. He invites us in the summer: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and I will give you rest” (Matthew 11:28). This is serious summer refreshment.

Do we want it? That is the question. Christ gives himself to us in proportion to how much we want his refreshment.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Jeremiah 11:12). One of the reasons to give the Lord special attention in the summer is to say to him “We want all your refreshment. We really want it.”

Peter’s word to us about this is: “Repent therefore and return, that your sins may be wiped away, in order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cts 3:19). Repentance is not just turning away from sin, but also turning toward the Lord with hearts open and expectant and submissive.

What sort of summer mindset is this? It is the mindset of Colossians 3:1-2, “If then you have been raised up with Christ, keep seeking the things above, where Christ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In the summer the earth is very much with us. And it is God’s earth! But it is all prelude to the real drama of heaven. It is a foretaste of the real banquet. It is a video preview of the reality of what the eternal summer will be like when “the city has no need of sun or moon to shine upon it, for the glory of God is its light, and its lamp is the Lamb” (Revelation 21:23). So, you see, the summer sun is a mere pointer to the sun that will be: the glory of God. Summer is for seeing and showing that. Will we have eyes to see? Do you want to have eyes to see? Lord, let us see the Light beyond the campfire.

## 2013 할렐루야대뉴욕복음화대회 찬양



2013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날 (7월 21일) 퀸즈장로교회 찬양대의 찬양





# 명준모 위장간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Reprocessing Machine  
최신살균세척기



Procedure Room  
내시경 검사실



Exam Room  
진·료·실



Recovery Room  
회·복·실



Consult Room  
상·담·실



Waiting Room  
대·기·실

명준모 위장내과에서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시설을 모두 완벽!  
한곳에서 두가지 검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간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NON PROFIT ORG.  
U.S. POSTAGE  
**PAID**  
FLUSHING, N.Y.  
PERMIT NO. 1126

월간 아가페 2013년 여름 제378호 발행인 | 박규성 목사 www.kapcq.org tel: 718 886 4040, 4340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원로목사 장영춘 / 담임목사 박규성

143 - 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 4040, 4340

FAX: 718 358 7789

EMAIL: agape@kapcq.org

www.kapcq.org

